

성도의 빛 ⁶ 1985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본부가 있는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 변화가의 모습

글렌 토마스 브라운 촬영

서로를 강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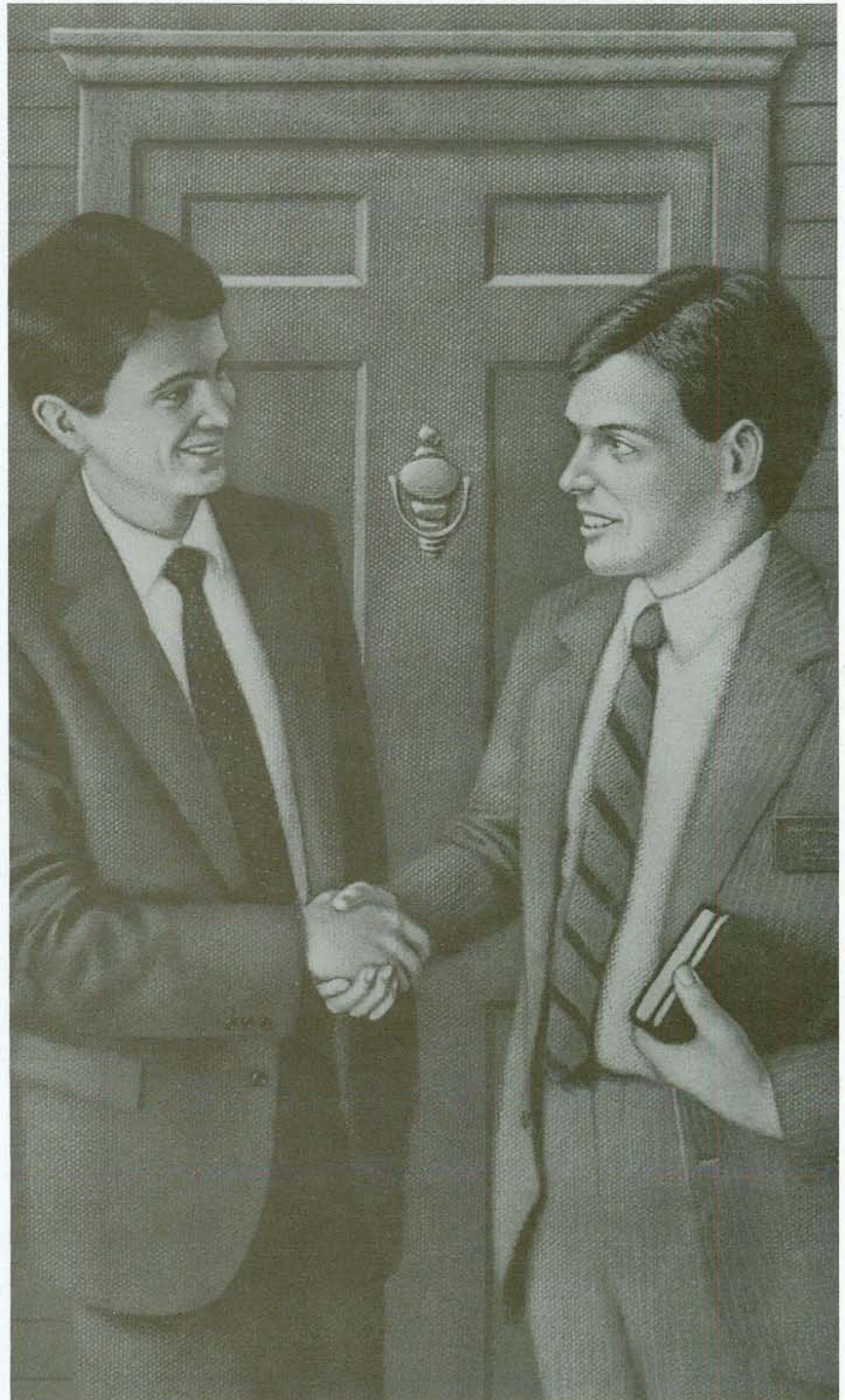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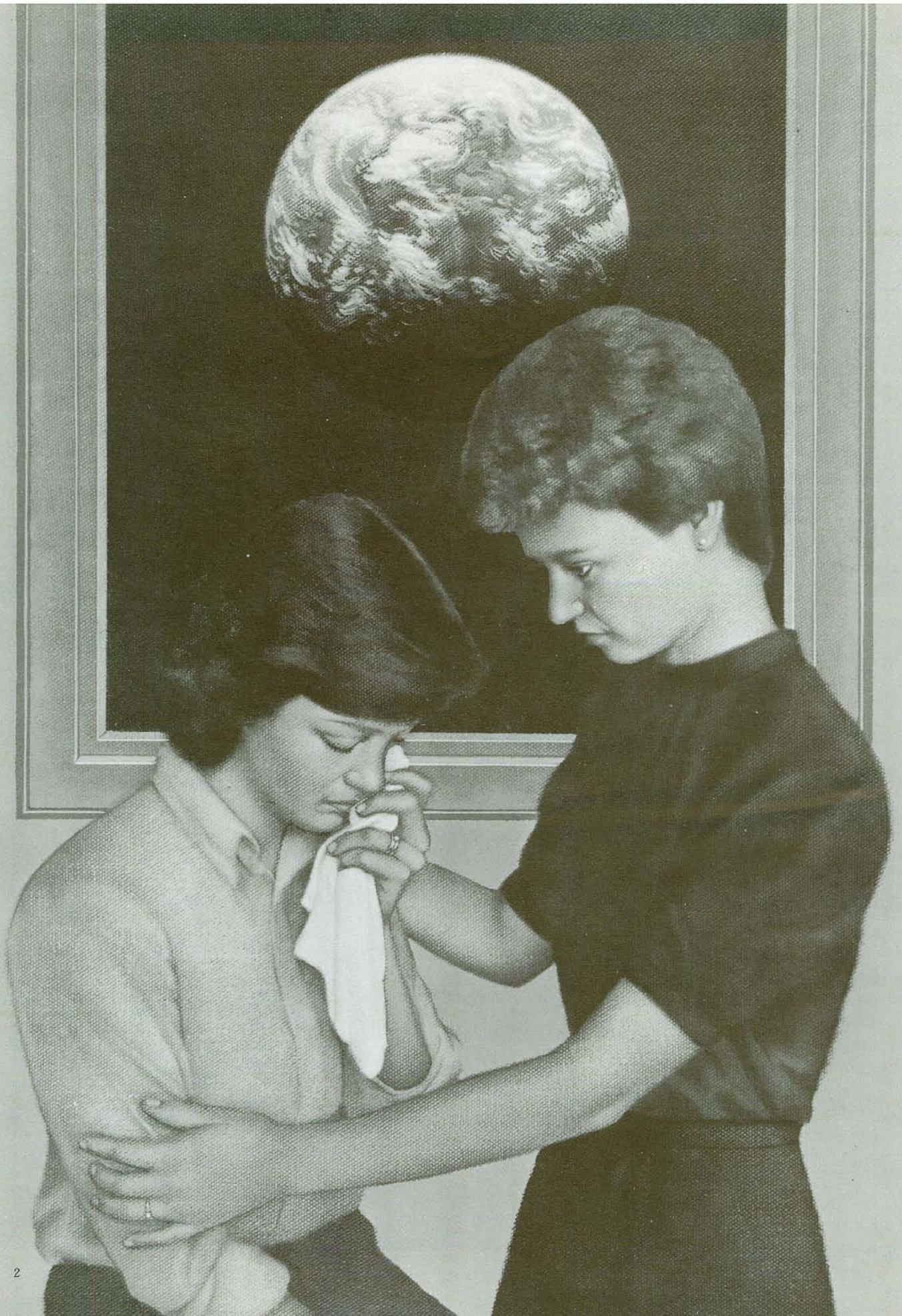
대관장단 제2보좌

우리가 참으로 좋은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은 과학과 기술의 진보라는 면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시대입니다. 또한 복음의 “때가 찬 경륜의 시대”이며, 이전의 모든 경륜의 시대의 권세와 권능이 모두 지상에 회복된 때입니다. 온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친구들로 이루어진 사회에 속해 있는 모든 수백만의 회원들과 더불어 교회의 회원일 수 있는 훌륭한 때입니다. 충실한 말일성도라면 어디를 가든지간에 친구를 사귈 수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일본 천황이 미국을 방문하였을 때, 나는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그를 위한 오찬회에 참석했었습니다. 나는 교회 회원은 아니지만 일본에 살면서 교회 회원들과 교제를 가졌던 사람들과 한 식탁에 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화 주제는 자신이 성장한 곳이 아닌 다른 나라에 살러 간 사람이 경험하게 되는 문화 충격으로 옮겨졌습니다. 수년간 외국에서 생활한 어떤 지식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선생님의 교회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가족이 일본을 방문할 때마다 일주일도 채 되기 전에 그들은 많은 친구들을 사귅니다. 그것은 분명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점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엄청난 고독감을 느끼며, 적응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는 외롭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많은 친구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신들이 생활하고 있는 지역에서 소수의 그룹에 속해 있는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거의 모든 곳에 우리와 같은 표준의 말일성도들이 가까이 있어서 우리는 그들과 함께 자유로이 어울리며, 우리가 함께 배워 온 표준대로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낙담한 어떤 선교사와 접견을 했던 일이 생각납니다. 그는 봉사하는 지역의 언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할 마음을 잃고 집에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속했던 선교부에는 180명의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집에 돌아간다면 179명의 동반자들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의 친구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를 위해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를 돕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하고자 했으며, 그와 함께 일하고, 그를 가르치며, 함께 기도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가 언어를 배우고 성공하도록 도왔던 것입니다.

나는 그가 다른 선교사들 모두가 그의 친구라고 확신시켜 준 것을 받아들였다는 보고를 여러분께 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그들은 그에게 도움을 주러 왔으며, 그를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를 강화시키려 했습니다. 혼자라는 절망적인 느낌이 그에게서 떠나 버렸으며, 그는 자신이 승리하는 팀의 일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성공적인 지도자가 되었고, 그 후로 계속 지도자로 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모두 서로를 위해 해야 하는 일입니다.

바울은 로마인에게 이렇게 적어 보냈습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런 다음 그는 다음과 같은 의미깊은 말을 덧붙였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로마서 15:1)

오늘날 세상에는 사람들이 서로를 헐뜯는 슬픈 풍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할 말을 하기 위해서는 그다지 머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와는 반대되는 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칭찬해 주도록 노력하십시오.

나는 여러 해에 걸쳐 아시아 지역에서 교회 일을 맡아 일해 오는

가운데, 선교사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접견한 일이 있습니다. 나는 그들 모두에게 각자의 동반자에게서 발견한 미덕이 무엇이며, 어떻게 자기들의 생활에 적용시킬 것인가를 물었습니다. 내가 그런 질문을 하면 모든 선교사들은 거의 한결같이 얼굴에 놀란 표정을 지으며 멈칫하곤 했습니다. 그 중 한 장로의 예를 들어 봅시다. 그는 동반자에 대하여 한번도 그런 면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동반자의 결점이나 약점만을 보았지 미덕을 하나도 알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잠시 동안 그의 동반자에 관해서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해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대답에는 “그는 열심히 일합니다.” “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웃을 단정하게 입습니다.”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들 젊은 형제 자매들은 동반자의 미덕은 쉽게 잊어버렸으나, 그들의 결점은 마음속에 잘 새겨 두고 있어 그로 인해 곧잘 실망을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태도를 바꾸기 시작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누구나 때때로 실망을 느끼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대체로 우리들은 한두번은 실패했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조차도 울었다고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적으로부터 멀리 떠나기 위해 미시시피강을 건넌을 때, 몇몇 성도들이 그가 도망가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알고는 좌절감과 슬픔을 느꼈을 것임을 나는 확신합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의 생명이 내 친구들에게 아무 가치가 없다면, 내 자신에게도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다.” 그는 돌아서서 일리노이주 카테지로 가서 얼마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는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과 해롤드 비 리 대관장 그리고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께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망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실망에 관하여 생각할 때는, 종종 전에 읽은 일이 있는 신문 기사를 기억하게 됩니다.

“때때로 실망을 느끼는 때가 있다면, 이 친구를 생각해 보라. 그는 국민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했다. 시골에서 상점을 운영했으나 파산했다. 15년이라는 세월을 두고 빛을 갠다. 아내를 맞이했으나 결혼 생활은 불행했다. 미국 하원에 입후보했다가 두 번 떨어졌다. 미국 상원 의원으로 입후보했으나, 두 번 낙선했다. 고전이 된 유명한 연설을 했다. 청중들은 무관심했다. 신문 지상에서는 매일 그를 공격했고, 국민의 반수는 그를 경멸했다. 이러한 모든 사실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간단히 에이 링킨이라고 서명하는 어딘가 서투르고, 단정치 못하고, 사색적인 이 사람에게서 큰 영감을 받았는가를 생각해 보자.”(윌 스트리트 저널)

여러분이 실망을 느낄 때는 다른 사람들 역시 그러하며, 그들의 환경은 대체로 여러분의 환경보다 훨씬 좋지 못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 중에서 누구든 주저앉는 사람이 있다면, 그의 친구들에게 그를 일으켜 세울 의무가 돌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우리 각자가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한 감수성을 키우고, 격려해 줄 필요가 있을 때는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친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친구를 갖게 될 것입니다. 훌륭한 친구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내에는 우리들 스스로를 경시하려는 서글픈 풍조가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보기에 자신을 갖고 있는 듯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들 대부분은 어떤 열등감을 갖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에 관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가 다 키도 크고, 검은 머리의 멋쟁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들 모두가 다 날씬하거나 예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 서글프게

느끼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경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거룩한 출생의 권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품격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시편의 작가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시편 82 : 6)

다윗이 이런 글을 썼을 때, 별 아래 앉아 이 위대한 잠재 능력을 생각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사람이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까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시편 8 : 4-6)

사람은 모두 위대한 것에 대한 잠재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주님은 계시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겸손하라. 그리하면 주 네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실 것이요, 네 기도에 응답해 주시리라.”(교성 112 : 10) 참으로 놀라운 약속이며, 우리의 개인적인 발전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진보에 관한 다른 속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문적으로 진보해 나가 연륜을 쌓게 되면, 지적인 오만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성향이 많이 눈에 띄게 됩니다. 그것은 대부분이 그릇되고 허울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허울뿐인 것이기 때문에 대체로 냉소적인 태도를 야기시키며, 궁극적으로는 어떤 형태로든 실망을 느끼게 합니다.

물론경의 예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악마의 간교한 피여, 오 인간들의 어리석음과 나약함과 헛됨이여, 저들이 학식을 얻으며 스스로 현명하다 생각하여 하나님의 권고를 듣지 아니하고 옆으로 밀어 내며, 저들이 스스로 아는 듯이 여기나니, 저들의 지혜가 어리석도다. 저들에게 유익이 되지 아니하니 저들은 필경 멸망하리도다.”(니파이서 9 : 28)

교회의 역사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위대하긴 했으나

어느 정도 교만해졌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게 된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에 관해서 윌포드 우드럽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올리버 카우드리를 보니, 이 땅덩이가 그의 발 밑에서 떨리는 듯이 보였습니다. 나는 영의 영향을 받아 그가 간증한 것보다 더 강한 간증을 한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왕국을 떠난 순간, 그가 지닌 권능은 순식간에 번개불처럼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는 들릴라의 무릎에서 삼손이 그러했듯이 그의 힘을 빼앗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리고 있던 권능과 간증을 잃었으며, 비록 그가 교회 회원으로 사망하기는 했지만, 이 지상에 사는 동안 다시는 원래의 상태로 그것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스탠리 알 건, 올리버 카우드리 : 두번째 장로와 서기, 솔트레이크시티 : 북크레프트사, 1962, 73페이지)

세월이 흐름에 따라, 우리는 누구나 우리가 갈고 닦을 필요가 있는 면에서 내부의 갈등을 겪게 됩니다. 교회와 그 역사와 교리와 관습에 관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의문이 일게 됩니다. 이 일에 관해서 나의 간증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반 세기가 넘는 세월에 걸쳐 교회에 깊이 관련되어 왔습니다. 나는 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 이후로부터 여러 교회의 대관장들을 모시고 일해 왔습니다. 나는 그랜트 대관장, 조지 엘버트 스미스 대관장,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 해롤드 비리 대관장,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과 친밀하게 지냈습니다. 이상의 분들의 보좌들도 알았고, 이들 대관장의 재임 기간 중의 십이사도 평의원들도 잘 알았습니다. 이상의 모든 분들도 한 사람의 인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속성을 지니고, 몇 가지 인간적인 약점을 지니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약점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러한 것을 극복한 이상의 모든 분들의 생활에는 하나님의 영감의 나타내심이 언제나 넘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대관장이신 분은 참된 의미에서 예언자이셨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내려지는 계시의 영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각기 십이사도 평의원으로서, 또한 기타의 직분에서 여러 해 동안 경력을 쌓은 뒤에 대관장단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그들 각자를 갈고 닦아 주시고, 각기 실망과 실패를 알게 하시고, 질병을 경험하게 하시고, 때로는 깊은 슬픔도 느끼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훌륭하게 단련시키는 과정의 일부가 되었으며, 그러한 과정의 결과는 그들의 생활에서 훌륭한 증거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복음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친구 여러분, 이 사업은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며, 그 이름을 따라 교회가 불려지는 사랑하는 아들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하는 자에게 교회의 머리에 서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의 예언자를 불러 그들에게 영감을 주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요셉 스미스는 때가 찬 경륜의 시대가 열리는 시기의 위대한 예언자였습니다. 우리는 즐겁고 참된 마음으로 노래부를 수 있습니다. *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강조 사항. 여러분의 가정 복음 교육에서 다음 사항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1. 우리는 누구나 때때로 실망을 느끼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2. 우리 각자는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한 감수성을 느끼고, 격려해 줄 필요가 있을 때는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3.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 서글프게 느끼며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경시하지 마십시오.
4. 칭찬을 해주고 다른 사람을 강하게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5. 주님은 교회의 대관장 한 분 한 분을 갈고 닦아 주시고, 실망과 실패를 알게 하시고, 질병과 슬픔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생활에서 이처럼 분명하게 나타난 이 위대한 단련의 과정은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됩니다.

“보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쉐리 비 워너



나뭇잎 하나가
회오리 바람에 휘날리듯
마지막 한 조각
용기마저 사라졌다.

내가 일곱 살 때 침례 또는 차례가 내게는 결코 오지 않는 것처럼 멀게만 느껴졌던 일이 기억난다. 나는 여러 주일학교 반원들이 침례받고 확인받는 것을 기대에 찬 눈으로 지켜 보곤 했다. 그들은 어쨌든 침례받은 후에는 내게는 좀 다르게, 그리고 매우 중요하게 보였다.

드디어 여름이 되었다. 우리 교사이셨던 닐슨 자매님이 다음 번에는 내 차례라고 반에서 말씀해 주셨다. 나는 시간이 그렇게 흐른 것을 거의 믿을 수 없었다. 나는 말일성도의 개척 기념일이기도 한 7월 24일, 내 생일에 침례받게 되어 있었다. 물가에서 나는 성신이 항상 함께 하시리는 약속의 확인을 받았다. 내 마음속에는 행복과 만족감이 가득했다.

그러나 여러 달이 흐르자, 성신이 거북스럽게 침묵을 지키심에, 항상 함께하신다는 말씀에 대해 얼마간 실망을 느끼게 되었다. 때때로 나는 내가 받은 특별한 약속의 확인에 따라 생활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다.

그러다가 내가 침례받은 지 두번째

되는 여름을 맞게 되었다. 나는 열 살이 되었고, 나이에 비해서는 큰 편이었다. 나는 집에서 재빨리 숙제를 마치고,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진 농장에 있는 할머니 댁으로 달려갔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에서 나는 그 먼 길을 나는 듯이 달려갔다.

그때는 건초를 베는 시기로, 내가 부지런히 길을 가는 동안, 들판에는 벌써 사람들이 건초더미에 올라서 일을 하고 있었다. 할머니 댁에는 건식탁에 발에서 따온 맛있는 과일과 야채, 갓구운 빵, 딸기 파이 등이 가득 쌓여 있을 것이다.

할머니와 함께 있는 특별한 여름날이 늘 그랬던 것처럼, 그 날도 순식간에 지나는 듯했다.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나기가 정말 싫었다. 언제나 그렇듯이, 할머니의 기분좋은 부엌에서 풍기는 따스함을 떠나기 싫었으나, 할머니 댁에 드리우는 나무와 언덕의 그늘이 점점 더 길어지는 것이 눈에 띄었다. 내가 좀더 지체하게 되면, 내가 집에 당도하기도 전에 어두워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저 아래 멀리 떨어진

“불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신이 진실로
나와 함께 하셨음을 알고
행복과 감사를 느꼈다.

강 계곡에 있는 우리 집을 알려 주는 창가에서 비치는 빛을 볼 수는 있겠지만, 역시 불안한 생각이 들었다.

나는 잠시 계단에 앉아 과수원에서 풍기는 싱싱한 과일과 뒤 창가에 피어 있는 장미꽃의 향긋한 냄새를 맡고 있었다. “왜 이렇게 어두워지는 것이지?”하고 나는 생각했다.

체념의 한숨을 내쉬고, 나는 정원에 난 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앞마당을 지나 언덕에 난 문으로 들어섰을 때, 나는 갑자기 밤이 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림자는 사라졌지만, 나는 가파른 언덕길을 내려오면서 돌맹이를 찼다. 나는 돌이 밑으로 계속 굴러 떨어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보통 때라면 돌을 언덕 아래로 차기가 재미있었으나, 오늘 밤만은 캄캄한 어둠 밤 속으로 그것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 음산하게 보였다.

언덕 밑에 이른 나는 낮에 많은 포장 마차들이 지나다니면서 패인 바퀴 자국에 물이 가득 고여 있는 것을 기억했다. 그 곳에 이르면 바위들에서 바위로 뛰어 건넜으나, 지금은 어두워서 그렇게 할 수도 없었다. 나는 “그래도 날도 따뜻하고 구두도 다 낫았으니 괜찮겠지.”하고 생각했다. 나는 바위들을 건너 뛰다가 발을 헛딛고 미끄러져 진흙밭으로 빠졌다.

시끄럽게 울어대던 개구리도 이제 잠잠해지자, 두려움은 검은 유령처럼 점점 더 커졌다. “노래나 불러야지.”하고 속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나 자신과 마찬가지로 두려움을 느끼게 된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졌다고 생각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주 예수의 군병들 앞으로 가세!”

노래 가사가 막 내 입에서 나오려 할 때, 마음속에서 “조용히 들어 보라.”고 말하는 음성이 들렸다.

잠시 나는 놀랐으나,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며 더 용기있게 “주 예수의 군병들”하고 노래부르며 점점 사그러지는 용기를 모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번에는 내 머리 속에서 “조용히 들어 보라!”는 명령이 가득 울렸다.

나는 멈칫하고 섰으며, 조금 전의 젖은 구두의 질퍽이는 소리보다 가슴이 더 크게 쿵쿵거리며 뛰는 것 같았다. 나는 결연히 숨을 모아 쉬고 “주 예수...”를 다시 부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한 마디가 나오기도 전에, 전에 들은 것보다 더 강하게 “잠잠하라”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 자리에 섰다. 나뭇잎 하나가 회오리 바람에 휘날리듯 마지막 한 조각 용기마저 사라졌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두려움에 질려 마음속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나는 무엇을 간구해야 하는지조차 생각할 수도 없었다. 그냥 자꾸 기도만 할 뿐이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공포심이 가라앉자, 마음이 안심되었다. 그리고 나자, “길에서 벗어나라!”는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곧 그 말에 따랐다. 전에는 큰소리를 내며 섰던 발걸음을

소리를 죽여 보면서 걷는 것이 아니라, 느끼면서 걸었다. 나는 칠흙같은 어둠 속에서 길 옆에 있는 들판 속으로 들어갔다. 나는 숨소리를 죽이고, 주변에서 나는 밤의 소리를 주의깊게 들었다. 전혀 알 수 없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

바로 앞에 시냇가가 놓여 있었으며, 그러자 언뜻 그 근처에 있는 못이 생각났는데, 나는 그 못을 타고 넘어가거나 울타리를 넘어 다니거나 하는 곳이었다. 그런 생각이 떠오르자마자 “문으로 넘어가지 마라”는 해답이 들렸다.

그러면 어디로 건너야 할까? 다시 생각에 잠겼다. 이번에도 시냇가와 양 옆에 관목으로 덮힌 늪지가 생각났다. 그 곳은 한낮에도 건너기 힘든 곳인데 밤에 어떻게 건널 것인가?

그때 나는 두려움을 몰고 온 밤 공기에 실린 냄새를 맡고, 곧 그것이 담배 냄새라는 것을 알았다. 대문 가까이에 분명히 누군가가 있었다. 그리고 긴장이 감도는 것으로 보아 몹시 위협적인 상황임이 분명했다.

내가 어떻게 그 늪지를 건너 반대편 땅을 밟게 되었는지도 이미 오래 전에 잊어버렸다. 내가 집에 도착하여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으며, 주변의 정황을 이야기한 것만은 지금도 분명하고 생생하게 기억한다.

부친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내 말을 믿어 주었다. 부친은 장화를 신고, 염총을 들고, 어둠 속에서 들판으로 나갔다. 그는 여러 시간 후에 되돌아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으나, 위로의 말로 안심시켜 주신 것으로 보아 내가 확실히 옳은 일을 했음을 알았다.

내가 그 긴 즐거운 저녁을 마치고 어둠 속에서 집으로 돌아왔지만, 성신이 진실로 나와 함께 하셨음을 알고 행복과 감사를 느꼈다. 나는 그것을 알게 해주신 은혜를 크게 감사한다. 그것은 내게 크게 도움이 되었다. 나는 내 생이 다할 때까지 그러하리라는 것을 믿는다. 구세주께서 이같이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불찌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태복음 28:20) *

물문경 심층 연구 : 제3부

존 엘 소렌슨

본 기사는 이 시대에 물문경을 지지하고 더욱 명백하게 해준 학문과 과학의 발전에 빛을 더해 준 시리즈 중의 마지막 부분이다. 본 시리즈의 먼저번 기사에서는 지리, 고고학적 관계, 인구, 금속의 사용 및 기록 등에 관한 사항이 고려되었다.

기타 주요 주제—정치적 구조, 거주 형태, 상업, 비밀 결사—에 대하여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도 있으나, 그보다는 이 시대를 비치고 있는 새로운 빛에 대한 주제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논증하는 것이 더욱 가치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사실을 제시함으로써, 혹자—그 중에는 유명 인사도 있음—가 물문경과 관련된 고대 미대륙의 문명에 관하여 알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할 것이다.

말일성도 학자들은 과거에 니파이삼서(6:8, 8:13)에 언급된 “대로”와 “작은 길”을 멕시코의 유카탄

반도에 있는 석회로 포장된 독길(sachbes)에 비교했다. 200년 전쯤 후에야 확인된 이 길은 거의 모두가 제한된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물문경 시대 이후의 연대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로 도로 건설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고, 중앙 아메리카의 한쪽 끝에서 다른쪽 연안까지 연결되어 있었음이 밝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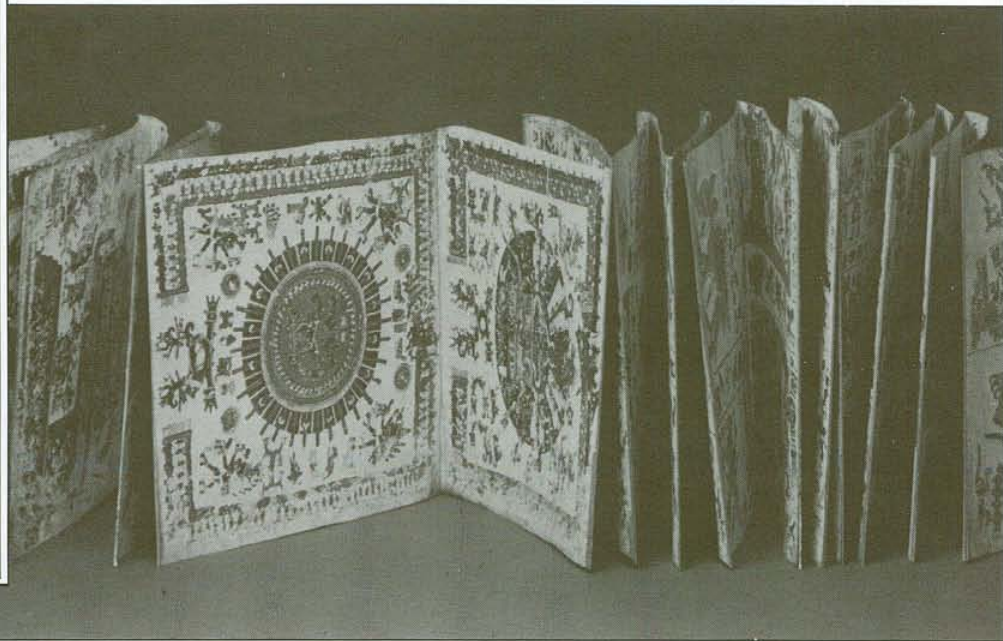
작금에 들어서 알려진 최초의 독길은 유카탄 북단의 콤켄에 있다. 플란 대학의 이 윌리스 앤드류와 그의 연구팀들은 그 중 하나의 연대를 주전 300년경으로 잡고 있다.① 벨리즈(과거의 영령 온두라스)의

케로스에 있는 다른 것은 주후 50년에서 150년 사이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② 그 후의 도로는 중앙 아메리카의 북단에 있는 멕시코의 자카테카스주에 있는 라 웨마다에 부설되었다.③ 그 밖에도 멕시코 시티의 남쪽 소우치칼코에는 3킬로미터에 달하는 포장된 도로가 현재에도 남아 있으며,④ 멕시코의 몬테 알반에도 있다.⑤ 보고된 대부분의 주요 도로는 간소한 지방 도로에 불과하지만, 유카탄 지역에는 하나의 도로가 100킬로미터에 달하는 것이 있다.⑥ 분명히 도로 건설의 연대와 내용에 관한 현재의 지식은 그리스도 사망 시에 “끊어”진 “평탄한



성도의 빛/1985년 6월호

코덱스 볼지아 복사,
중앙 멕시코에서 발견된 것으로
주후 700년대 초의 왕조와
정복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
그것은 마야 법전의 형식과 동일한
점은 사슴 가죽 "책"으로
야생 무화과나무 껍질을
두드려 만든 종이에 쓰여진 다음,
석회 플라스터를 입힌 다음,
여러 가지 색깔로
그림과 상형 문자를 칠했다.



길"이 남아 있는 것이라는 개념과 일치한다. (니파이삼서 8 : 13)

말일성도는 고대 아메리카 대륙에 있었던 "시멘트"에 오래 전부터 특별한 관심을 가져 왔다. 그런 것은 없었다고 주장한 몇몇 전문가들도 있었던 듯하다. 그러나 지난 두 세대의 학자들 가운데는 아무도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없었을 것이다. 다양한 성분의 콘크리트를 사용한 중앙 아메리카 건축물은 널리 퍼져 오랫동안 서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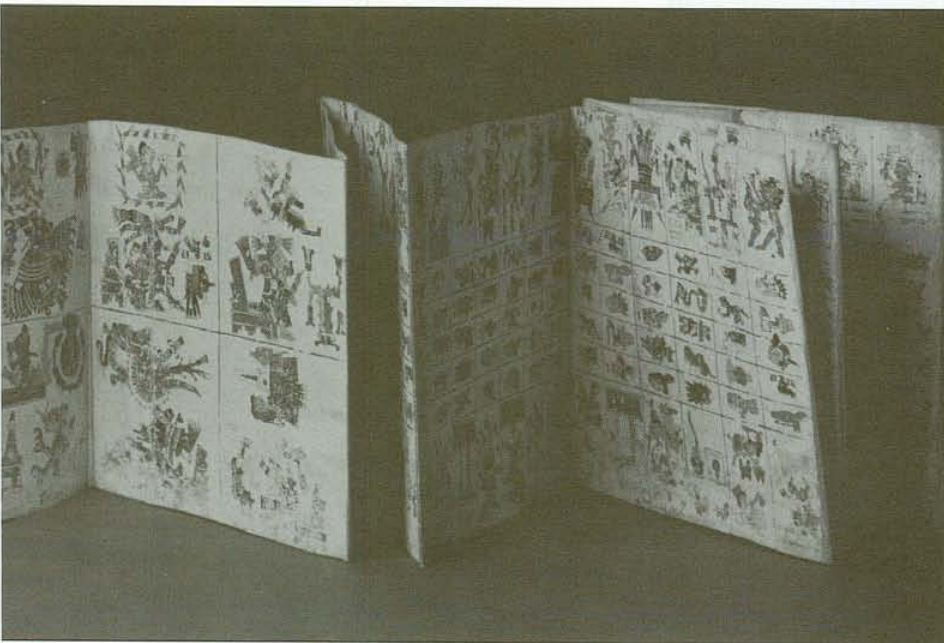
현재 특별히 관심을 끄는 것은 단순히 그러한 물질의 표현에 있다기 보다는 상당한 건축물에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음이 나타난 것이다. 예를 들면, 멕시코 시티의 걸프 코우스트 동쪽 근처에 있는 엘 파진에는 여러 건축물의 지붕이 75미터 정방형으로, 콘크리트로 된 단일 슬라브 지붕으로

만들어졌음을 알게 된다. 여기에 쓰인 성분은 조개 껍질에 모래와 속돌(부석) 빵은 것 또는 도자기 조각을 혼합한 것이다. 그것은 준비된 나무틀에 부어져, 형태를 잡게 되어 있다. 때로는 집짓는 사람들이 방울 돌과 진흙으로 채우고, 콘크리트를 수용하기 위해 위의 표면을 고르게 바르고, 위의 바닥이 마르고 나면 내부에 채웠던 것을 견어 내었다. ㉔ 타진에 남아 있는 유물이 물론경 시대 이후의 것으로 추정되기는 하나, 우리는 순수한 콘크리트가 그리스도 시대 이전에 이미 사용되었음을 알고 있다. ㉕

물문경에 언급되어 있는 동물들도 갖가지 의문을 제기한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 말이니 가축, 염소 등의 영어로 번역된 명칭은 그러한 용어로 읽을 때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종(種)을 그대로 일컫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전세계적으로 새로운 정착민들간에 동물을 명명하는 관습은 상당히 단순화되어 있음이 우리의 경각심을 불러 일으킨다. 예를 들면, 니파이인들은 그들이 처음 정착한 땅에서 "염소"와 "들염소"를 발견했는데(니파이일서 18 : 25 참조), "들" 자가 들어가는 짐승은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 쉬운 그런 것을 의미한 것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경전 내용에서 그러한 짐승은 모두 숲속에서 길들여지지 않은 채로 발견되었음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기록에 나타나 있는 동물들을 우리가 염소를 생각하는 동물들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것임이 확실하다.

동물(및 식물)명의 어의론은 다른 시대의 모든 원전을 해석하는 데서도



남부에서 출현되기도 하며, 등에 짐을 진 라마상이 코스타리카 북단에서도 발굴되어 왔다. 실수로 사슴이라 명명되어 사람이 올라 탄 동물상이 멕시코와 과테말라에서 출토되었다.⑩ 그렇다면, 필경 사슴은 “말”로 불려졌어야 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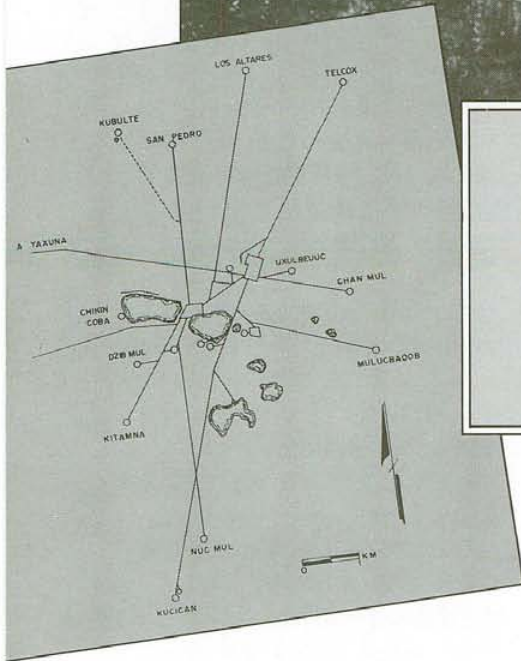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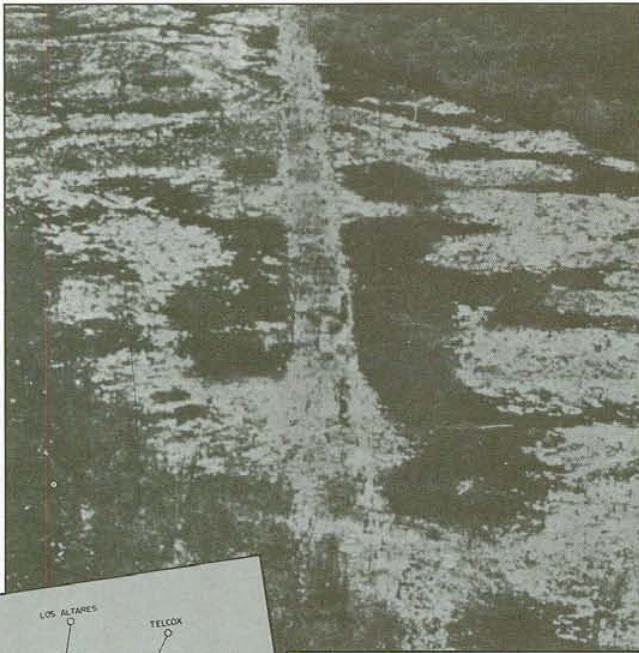
이상의 것을 한데 합쳐 보면, 콜롬비아 시대 이전의 중앙 아메리카 백성들은 동물을 사냥하는 외에는 동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고, 거의 관심도 갖지 않았다는 전통적인 전문가들의 견해가 받아들여지기 힘들다는 암시를 받게 된다.⑪ 물론경에 있는 동물에 관한 모든 말이 아직 학문적으로 연구해 낸 것과 일치하지는 않지만, 두 가지의 묘사가 지난 20년 동안에 훨씬 가깝게 되었다. 더욱 광범위한 연구로 남은 문제의 해결이 보다 용이해질 것이다.

물문경에 실린 몇몇 재배 식물군이 콜롬비아 이전 시대의 식물상 목록에서 빠져 있어 경전 독자들을 당황케 했다. (비평가들은 의기양양했겠지만) 그러나, 고매에 재배된 곡식에 대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고고학적 연구 실적이 지극히 미미하므로 아직도 불충분한 상태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발굴 자료는 발굴해 낼 수 있는 것의 1퍼센트쯤에 달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이며, 그나마 그 작업의 대부분은 질적으로 상당히 의문의 여지가 많은 것이었다.) 바로 지난 해에, “신세계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재배된 보리”가 아리조나주 남부에서 출토되었다.⑫ 이것은 물문경에서 보리가 상용되었던 듯이 니파이인의 화폐 가치에 관련시켜 보리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흥미를 자아낸다. (엘마서 11 : 7, 15 참조)

이 예는 “사실”과 번역상의 차이에서 역사적 및 고고학적

문제가 된다. 유카탄 반도에 대한 디에고 드 란다의 불과 400년 전에 묘사한 설명문조차도 오늘날의 자연 과학자들이 분명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 한 문화권에서 다른 문화의 언어로 명칭이나 언어에 대한 지식을 옮기는 데에는 항상 문제가 따른다. 이리하여, 스페인들은 이국산 소(“비팔로우”)를 소로 부르는 데 반하여, 델라웨어 인디언들은 유럽인들이 부르는 소를 사슴이라는 그들의 명칭으로 부르고, 마야의 인디언들은 우리가 양이라고 하는 것을 “소처럼 생겼다.”라고 말했다. 한편 마야의 저지대 주민들은 익살스럽게도 스페인 양을 태맨이라고 불렀는데, 그것을 직역하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목화”라는 것이다. 랜더 감독은 유카탄 지역의 작은 사슴을 “작은 들염소의 일종”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는 또한 맥(타피르)이 노새 크기의 소와 같은 발굽 동물로 지적했으나, 그에 주어진 스페인 명칭은 “한때 당나귀”⑬였던 것으로 번역되고 있다. 전문 용어는 치밀하게 원래대로 되돌려진 복잡한 문제이다. 어떤 동물들이 실제로 콜롬비아 이전 시대에 중앙 아메리카에 출현했는가를 입증하는 과학적 및 역사적 증거를 활용하노라면 물문경에 언급된 각 동물들에 대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가축의 범주에 가능한 동물로 사슴이 있다. 코르테즈 탐험대의 대원들은 마야 국가에서 반 가축화된 사슴 무리가 있었음을 알아냈으며,⑭ 엘 살바도르의 한 종족은 사슴을 생업으로 치고 있었음이 보고되었다. 다른 증거로는 낙타에 해당되는 남 아메리카의 동물인 알파카가 멕시코



멕시코 시티 근교의
테오티후아칸 유적지에서 발굴된
토대는
고대 중앙 아메리카에서의
시멘트 사용을 입증해 준다.
(가스 노만 사진 소장)

멕시코 남부에 있는 장엄한 팔렌끄에 있는 비문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마야 상형 문자를 좀더 많이 해독하려는 최근의 연구 사업에서 지도자로 일해 왔다. 거기서 극적인 새로운 사실이 나타났다.

셰일이 결론지은 한 가지 사실은 팔렌끄의 통치자의 재임 기간의 추정이었다. 주후 600년부터 670년경에 권세를 잡고 있는 사람은 파칼 대왕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으며, 그 후 찬 바람이 30년간 통치했으며, 그 후에는 쿡이 40년간 다스렸다. 셰일은 “사실 오랫동안 왕위에 있었던 이 통치자들은 마야 왕족 기록 중에서 흔히 있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그러한 기간을 어떤 사람들은 비현실적으로 길게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한 지역의(유명한 이집트 지역과 같은) “왕국”의 무덤에서 찾아 낸 뼈를 조사한 인류 학자들은 그들이 젊은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역설적인 결과 같지만 뼈에서 추려 낸 사실과 기록에 들어 있는 사실과는 서로 다르다. 우리는 아직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비슷한 이유로, 물문경의 비평가들은 야렛 통치자들의 연령 및 통치 기간의 불가사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물문경은 과학과 역사가 아직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제시해 주는 마야 문명 시대의 비문과 일치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야렛인의 기록은 그것이 다른 고대 기록과 비슷하기 때문에 좀더 믿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다양한 다른 주제에 대한 자료를 조사해 보면, 물문경에 들어 있는 요소 요소가 넓은 의미의 묘사에서만이 아니라, 상당히 사소한 묘사의 면에서도 중앙 아메리카에 대한 전문가들에 의하여 현재 알려지고 있는 사실과 점차 일치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지니프 백성들의 곡물로 번역되지 않은 채 “시움”(모사이아서 9:9)이라 불리던 것도, 140년 동안 불분명한 채로 있다가 결국 그것이 아카디아(바빌로니아) 말로 보리를 뜻하는 séum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흥미있는 것은, 이 형태가 야렛인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떠난 때로부터

기록에서 오늘날 결여되고 있는 것도 내일의 연구로 보완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말로 지적인 독자와 전문가들에게 똑같이 전달되어야 한다.

최근에 남아메리카 지역에서 “그 곳에 있는 것으로 생각되지” 않았던 식물을 발견한 다른 두 명의 고고학자들에 의하여 바로 그러한 의미가 전달되었다. 테렌스 그리더와 알베르토 부에노 멘도자는 페루에 있는 콜럼비아 이전 시대의 지역에서 망고 열매와 바나나 잎의 화석을 발견했다고 보고했다. 다른

고고학자는 그러한 종류의 식물은 유럽인들이 가져 오기 전까지는 신세계에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한 것을 “찾아 낼 수 없었을” 것이라는 기사를 발표하며 의의를 제기했다. 발표자들은 그들의 발견물을 확인하고, “우리가 이미 알려져 있는 것만을 찾아 낼 수 있다면, 발굴하는 어려움을 무엇 때문에 감수할 것인가” 하는 다소 격양된 글을 발표했다. 발굴품이 현재 있는 것을 재차 확인하는 것이어야 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새로운 것을 찾아 낼 수 있는가!

그것은 의미있고 새로운 내용을 좀더 많이 발굴해 내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린다 셰일은

3000년이나 그대로 지속되었다.)^⑩ 금에 대한 마야 언어 나얍은 같은 의미를 지닌 이집트어의 노웁(noub)을 나타내며, 초크아의 하마틴(hamatin), 곧 구리는 이집트어의 hnty, 구리를 암시한다. 엘마와 사무엘은 400년을 주기로 한 연대말에 중요한 사건을 예언하고 있는데, 마야의 예언자들도 역시 그러했다.^⑪ 이러한 현상은 얼마든지 찾아 볼 수 있다.

짜개(거듭 알람)

나는 중앙 아메리카 문화와 물몬경 백성들간의 지리, 역사 및 크고 작은 규모의 문화 형태에서의 일치에 결정적으로 어떤 것을 “증거”해 주지는 않음을 거듭 말해 왔다. 그러면서도, 것처럼 많은 면에서 일치한다는 사실은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진한 인상을 심어 준다. 이를 마음속에 새겨 두고 살필 때, 어느 학자가 물몬경이 “인디안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임을 지지할 만큼 “중요한 고고학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거나,^⑫ 누구든 물몬경을 역사적인 중요성이 있는 객관적인 사실과 비교해 보고자 진지하게 노력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해 버리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⑬ 명백히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된다.

진보된 지식의 소유자라면 이처럼 시대에 뒤떨어진 엉뚱한 말은 하지 않아야 한다. 합당한 자료를 준비하지 않은 고고학자들도 물몬경의 역사성에 대한 논평을 삼가해야 한다. 중앙 아메리카에 있는 자료와 상당히 많은 면에서 시사된 물몬경의 일치점에서 볼 때, 구대륙의 형태와 그 일치점을 생각하지 않는다 해도, 소위 논평가라는 사람들은 현재 나타나 있는 복합적인 자료를 치밀하게 연구해 보기 전까지는 사실상 입을 다물어야 한다. 그리고 그 주제에 대하여 연구하고 토론하는 사람들도 합당한 방법에 따라야 할 것이다.

나의 견해로는, 상당히 많은 과제가 여전히 미비된 상태이기는 하지만, 외부적인 근거에서 나온 사실과 세밀하게 비교해 본 바, 물몬경은 참으로 훌륭한 것이다. 그러나 책 그 자체는 아무리 학문적인 연구가 그 본체를 보인다 해도, 그보다 훨씬 월등하고 독자적인 것이다.

성도의 빛/1985년 6월호



사슴에 올라타
향로 뚜껑에 경배하는
전장 26.5센티미터의 남자 소상.
사슴의 뿔과
남자의 머리 장식 중앙 부분이
떨어져 나갔다.
파테말라, 풀톤에서 출토.

비평가들이나 변명가들이나 누구든 역사는 변경시키지 못한다. 그들은 그들이 하는 어떠한 말보다는 더 깊은 영향을 미치는 실제에 대한 논평을 할 수 있을 뿐이다.

금세기에 들어서 첫 삼사 분기의 중앙 아메리카 연구자들이 그 지역의 문명에 대하여 이처럼 아는 바가 없고, 심각한 오류를 저질렀다는 사실로 인해 우리는 놀랄 필요가 없다. 그들은 그들이 입수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최선을 다했으나, 그것에는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었다. 오늘날에도 역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학자들도 고대 미대륙에 대한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면에서 실수를 저지르기 쉽다. 이러한

무능력에 대한 최선의 방어책은 마음을 열어 놓는 것이다.

최근에 중앙 아메리카의 고고학자들 중의 한 사람이 그들 스스로에 대하여 비판을 가한 일이 있었다. “더 이상 지지받을 수 없는 가설에 대한 단정적이고도 무익한 집착이다. 새로운 발견이 구시대의 가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설이 이론으로 정립되고, 열렬하게 비호되어, 선사 시대의 중앙 아메리카의 주민들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손상시킨다.”라고 주디스 앤 레밍턴 박사는 말한다.^⑭ 그들의 전문 분야에서 지도자로서 자리를 굳히고 있는 고고학자들은 그들 자신의 정통성에 일치하지 않는 개념은

“피라밋의 신비나, 외계인의 도래, 또는 이스라엘의 잃어 버린 지파를 찾는 일 등에 대하여 말하는 것과 같이 공론”²⁰에 그치는 위험한 일로 생각한다고 불평한다. 그녀는 현재 등장하고 있는 새로운 세대로 이루어진 중앙 아메리카 전문가들은 훨씬 더 편협하지 않고, 염려하는 마음이 적어, 유명 인사들이 닦아 놓은 “중앙 아메리카 연구의 전체 영역이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개념에 의해 파괴될 것이며,” 단순히 진리를 찾는 데 더욱 열을 올리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우리 말일성도들은 신세대가 현재 진행되는 고고학적 발견물에 관련시켜 물문경을 더욱 신중하게 다루어 주기를 희망한다.²¹

그러나 학자들이 스스로의 편협함에 대하여 비판받고 있다 해서 독선에 빠져서는 안된다. 우리는 특히 고고학과 관련된 어떤 주제에 대한 사실에 대하여 충분한 “민속적인 이해”로 대치시키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해 왔다. 우리는 고대의 니파이인과 야렛인에 대한 새로운 사실과 새로운 해석을 기대해야 한다. 그것은 당연한 귀결이기 때문이다. 비에이치 로버츠 장로는 이러한 개방성에 관해 우리를 현명하게 가르쳐 주었다.

“이제 물문경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한 새로운 발견과 이 지상에서의 주님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주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한 마디 해야 하겠다. 우리는 어떤 두려움에 떠는 마음으로 연구 결과를 따를 필요는 없다. 우리는 다만 진리의 확인만을, 진리가 굳굳히 지켜 나가기만을 바라며, 어떤 경우에도, 또는 어떤 주제에 대한 것이든 진리의 확인과 진리의 선언이 진리 그 자체가 되는 주님의 사업에 아무런 해를 입힘이 없기를 바란다. 우리는 우리보다 앞서 가신 분들 가운데 진리를 밝혀 내는 일에 크게 공헌하여 우리의 공경과 사랑을 받고 계신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했다 하여, 또는 그들의 생각과 연역법에서 그릇된 점을 발견할 때가 있다 해서 놀랄 필요가 없다. 그것은 우리 뒤를 이을 후손들이 아직 알려지지 않은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면서 우리 시대에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그릇되게 연역했던 점을 알게 되리라는 사실과 같은 것이다.²² 그 모든 것은 특히 교회 회원들이 물문경 그 자체와 그에 대한 것에서 새로운 진리를 찾고,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되리라는 것을 보여 준다. *

주

1. 윌리스 앤드류 공저. “콤포: 유카탄 북서 지역에서의 고대의 마야 사회.” 1981년 소시에다드 멕시코나 드 앤드로 폴리시아, (산 크리스탈, 치아파스) 모임에서 제출된 논문, 15페이지.
2. 윌리스 앤드류, “Dzibilchaltun”, 제이 에이 샬로프 편저, 중앙 아메리카 인디안의 지침서 보충 자료, 1권, 고고학(오스틴: 텍사스 대학 출판사, 1981), 322페이지.
3. 페드로 아미라스(Pedro Armillas), 공보(14호 1963), 16-17페이지.
4. “현대의 연구.” 미대륙의 고대 도기(1980), 623페이지.
5. 리처드 이 블랜튼 및 스티븐 에이 코 왈류스키, “옥사카 제곡에서의 몬테 알반과 그 이후”, 제이 에이 샬로프에서, 106 페이지.
6. 안토니오 부스틸로스 카릴로, (Antonio Bustillos Carillo, *Mexico B. Cost-Amic Editorial*, 1974) 23페이지.
7. Instituto nacional de Antropologia e Historia, 엘 타진: 공식 지도서. (멕시코: 1976)
8. 데이비드 에스 하이만, 스페인 이전 시대의 중앙 아메리카 건축에서의 석회 시멘트에 대한 연구. (발티모어: 존스 홉킨스 대학 지리 환경 공학과, 1970), II 페이지. 모리스 도마: (*Maurice Daumas, Histoire Generale des Techniques*, (파리, 프랑스 대학 출판사, 1962) 403페이지.
9. 존 엘 소렌슨, 물문경에 대한 고대 미대륙의 배경, (프로보: 고대 연구 및 물문 연구 재단) 제 7 장은 광범위한 기록을 제공한다.
10. 드니스 폴스톤, “반 가족화된 동물의 역할, 중앙 아메리카 생존물의 자료,” 미국 고고학 협회, 제37차 연례 모임에서 읽은 논문, 1972.
11. 브이 키더, “중앙 아메리카에서 채집한 다양한 표본.” 중앙

아메리카의 고고학 및 인류학, 워싱턴 카네기 재단, 117번(1954년 3월), 20페이지.

“고대 세계에서 바퀴달린 조각상”에 제시된 관련 기록, 고대 연구 및 물문 연구 재단(프로보, 1981), 14페이지.

12. 유진 현, “아즈텍에는 가축이 부족했는가?” 미국의 인종학자, (1982), 578-88페이지.
13. 다니엘 비 아담스, “최후의 고고학”, 사이언스 83, (1983년 12월) 32페이지.
14. “편집자에게 보내는 편지”, 아케올로지, 34(1981 5, 6월), 7페이지.
15. 린다 쉘리, “성스런 지역과 세계-팔렌즈에서 보는 광경.” 이 피벤슨 편, 중앙 아메리카 지역과 세계의 관점, (워싱턴, 덤바튼 옥스, 1981) 112, 116-17페이지.
16. 알베르토 러즈, (Alberto Ruz L.) 고대 마야의 장례식 관습(멕시코 마야 문명 세미나, 1968); 알베르토 러즈, 팔렌즈: 공식 지침서(멕시코, 1960), 46페이지.
17. 로버트 에프 스미스, “물문 경전에 들어 있는 몇 가지 ‘신교의,’ 물문의 언어 연구 대회, 1973 (프로보, 브리감 영 대학, 언어 연구 센터, 1973년), 66페이지.
18. 소렌슨, 고대 미대륙의 배경, 6장, 원고 28-33 페이지.
19. 마빈 힐, “물문 경험의 고찰”, 미국 역사 고찰, 84-85, (1979년 12월) 1488페이지.
20. “스터링 엠 맥어린과의 인터뷰”, 세븐슨 이스트 프레스, 프로보, 유타, 1983년 1월 11일, 5페이지.
21. 주디스 앤 레밍톤, “중앙 아메리카 고고 천문학: 시차, 전망 및 초점.” 레이 에이 윌리엄슨 편, 미대륙에서의 고고 천문학, 발레나 출판사 인류학적 논고, 제22호, (로스 알토스, 캘리포니아: 발레나 출판사, 1981) 200-02 페이지.
22. 위와 같은 책, 202페이지.
23. 물문경에 대한 고대 미대륙의 환경, 13, 24호 참조.
24. 비에이치 로버츠, 하나님의 새로운 증인들, II. 물문경, 제 3 권에서 (솔트레이크시티: 데저렛 뉴스, 1951), 503-04페이지. *

신뢰를 지키는 일

래리 월러



얼마 전에 나는 우리 와드를 위한 중요한 기금 모집을 주도한 일이 있다. 그 일이 다 끝나자, 나와 함께 그 일에 열심히 매달린 사람들은 기분 좋게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나에게서는 여전히 큰 걱정이 남게 되었는데, 곧 모든 기금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었다. 물품에 대한 배상을 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들도 있어, 나는 우리가 지불한 돈에 대한 정확한 영수증과 송장을 모두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했다. 나의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도 내가 교회 기금을 합당하게 취급했는지에 대하여 어떠한 의문도 있을 수 없음을 확신해야 했다.

나는 감독님이 나를 신임했음을 알았으나, 의문스러운 것이 있을 수 없음을 확인하기를 원했다.

최근에 일어난 어떤 일로 해서 나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성실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생각을 더욱 깊이 간직하게 되었다. 한 친구가 나에게 개인적인 문제로 은밀하게 이야기하러 왔다. 그는 충고를 듣기 보다 그 사태에 대하여 논하면서 그의 말에 귀기울여 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는 내가 알게 된 일들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졌다면 크게 당황했을 것이며, 내가 그러한 그의 믿음을 깨지 않으리라는 것을 믿었다.

우리들 중에는 다른 사람의 실체의 재물을 고의로 무시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매일매일 절도에 관한 뉴스가 등장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산에 관한 문제가 대두될 때, 기본적으로 정직하다. 그러나 정보와 같은 실체적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가? 우리는 그러한 면에까지 성실하게 대하는가? 여러

해 동안 나는 교회에서, 크게는 사회에서 신뢰감을 키우는 가치를 배웠다.

여러 면에서 정보는 통화와 같은 것이다.

행정계에서나 사업계에서 믿을 수 있는 정보란 사고 팔고 무역하는 상품과 같은 것이다. 귀중한 정보의 출처가 되는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목적을 위해 그 정보를 원하는 다른 사람들이 존경하는 마음으로 받들게 된다. 잘 지켜진 정보는 부와 같은 힘을 얻는 수단이 되는 중요한 것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돈과 마찬가지로, 정보는 선과 악한 목적으로 공히 사용되는 것이다. 유혹과 함정은 매우 흡사하다. 사실, 정보를 잘못 사용하는 사람과 돈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을 들어 몇 가지 흥미있는 점을 비교해 볼 수 있다.

“자아 과대 평가”

사람들은 흔히 돈을 자유롭게 씀으로써 중요한 사람같이 느끼고, 그렇게 보이려고 하며, 때로는 빛을 저 가면서까지 그와 같이 하려 든다. 그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우리들은 그들이 알지 못한 어떤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함으로써 얻는 중요 인사가 된 듯한 느낌을 좋아한다. 돈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를 우리가 “소비”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알 수 없을 것이며, 소비하고자 하는 유혹은 상당히 강력한 것이 될 수 있다. 우리는 대부분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나 앞으로 있을 사건에 대한 정보의 재미있는 면을 말하는 단체에 속해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토론이 진행되면서,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것을 파고 들려 한다. 이것이 자아의 문제가 된다.

때로는 그들이 갖고 있지 않는 정보를 “소비”하고자 하는 유혹에 굴복하기도 하고, 더 나쁜 것은 그들의 것이 아닌 정보를 믿음을 배반하면서까지 소개하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어떤 주제에 대하여 공개되지 않는 정보를 갖고 있으나 그에 대하여 자유롭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식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나도 이 만큼은 말할 수 있다.”라는 말로 흔히 그것을 시인하게 되기도 한다.)

“위조자”

이는 합당한 정보를 얻을 수 없을 때, 간단히 꾸며대는 사람이다. 물론, 그가 꾸며낸 것이 실제로 통용된다면 그것은 실제적인 것이 되어야 하며, 흔히 여러 가지 진리의 요소가 포함된다. 그러나 결국 거기서 나온 것은 여전히 거짓인 것이다.

위조 지폐가 통화 질서를 번조시키고 모든 지폐를 불신하게 하듯이, 거짓과 그릇된 정보는 모든 정보를 불신하게 한다. 그러한 것이 사회에 출현하게 되면 많은 참된 정보는 자연히 의심의 사계 되기 때문에 그것은 뜻깊은 의사 소통을 훨씬 어렵게 한다. 확실히 위조하는 사람과 그 역할에 대하여 생각해보면, “거짓의 아버지”라는 칭호를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람임을 기억해야 한다. (모세 4:4 참조)

“절도”

다른 사람들의 생활에 지나친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 그들은 사람들을 주의깊게 지켜 본다. 그들은 꼬치꼬치 캐묻는 질문을 한다. 그들이 관찰한 바를 단순히 한데 묶어, 그것이 참된 것이든 참되지 않든, 그 나름대로 결론에 도달한다. 그들은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가 흔하지만 개의치 않는다. 그들은 어떤 것이 가치있는 것으로 생각되면, 설사 그것이 정당하게 그들의 것이 아니라 해도 곧 소비시키려 든다.

꼬치꼬치 캐묻는 성격이 아닌 사람도 관찰에 의해서거나 지나가는 소리를 들음으로써 우연히 어떤 것을 알게 될 때 유혹을 받을 수 있다. 그러한 정보는 돈을 줌의 것과 같다. 정직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돈 지갑을 줌다면, 그 안에 든 것을 전혀 손대지 않는다.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주인에게 돌려주고자 한다. 우리가 “주은” 정보를 되돌려 줄 수 없을 때, 그것을 안전하게 보관해 줄 수 있다.

“신용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사적인 일도 예민하게 살피면서 우정과 믿음을 증진시킨다. 그는 정보를 조금씩 내어 주면서 기밀의 분위기를 촉진시키는 수가 많다. 그런 다음 그는 열심히 새로운 동전을 소비하는 길을 걸어 나간다.

“소비 절약”

은행 구좌나 주머니에 돈을 남겨 두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돈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소비해야 한다. 그것은 이제 막 돈의 위력과 사는 즐거움을 알게 된 어린이들에게 충동적으로 흔히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성인에게 있어 그러한 성향은 재난을 초래하게 되고, 신용을 잃고, 파산 지경에까지 이르게 한다.

우리는 대부분이 정보 소비 절약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은 그들 자신의 생활에 대하여 당황할 정도로 솔직하다. 그들은 조금 친밀한

분위기가 되면 그들 자신에 대한 정보를 내어주며 그들도 같은 믿음을 받게 되도록 유혹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사람들은 그들 자신에 대하여 그러하듯 다른 사람들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서도 부주의하게 된다. 이런 사람을 믿고 신중을 요하는 정보를 내어주는 것은 무리하게 해나가는 도박꾼을 믿고 돈을 빌려 주는 것과 같은 것이다.

“투기자”

경제계에서 투기업자는 자기 돈이 더 늘어서 돌아오게 되리라는 기대와 희망을 품고 어떤 것에 투자를 한다. 그는 현재의 상황과 형편을 살피고, 앞으로의 시장과 회사의 사태를 짐쳐 보려 한다.

정보 투기가들도 기본적으로 그와 같다. 그들은 사람들과 조직을 매우 치밀하게 관찰한다. 조직이나 프로그램 내에 일어나는 상당히 잦은 변화에 익숙하게 된 성장하는 동적인 교회는 그러한 사람들의 온상이 된다. 그들은 모든 면에서의 부름을 예상해 보기를 즐긴다. 예를 들면, 그들은 현 상호부조회 회장은 임신 중이어서 곧 해임되기 쉬울 것이며, 존스 자매는 최근에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임원에서 해임되어 현재보다 낮은 부름에서 봉사하고 있다. 그녀는 여러 번에 걸쳐 청녀 회장단과 초등학교 회장단에서 봉사했으며, 와드의 자매들도 그녀를 좋아하고, 집에 어린 자녀들도 없고, 그녀의 남편은 협조적이다. 등등. 분명히, 그녀를 선택한 것은 가장 훌륭한 선택이다. 투기자들은 그녀의 부름을 미리 알릴 뿐 아니라, 존스 자매와 가장 친하게 지내는 두 자매를 그녀의 보좌로 선택하기까지 한다.

존스 자매가 실제로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부름받는다면, 투기자들은 알고 있다는 듯이 서로 고개를 끄덕인다. 그들의 후보자 중 어느 한 사람이 보좌로 부름받는다면, 그들은 다시 고개를 끄덕인다. 그리고 다른 보좌에 대한 그들의 추측이 틀리면, 이번에는 그 이유를 찾아 나선다. 그들은 의견이 서로 맞지 않고, 이제는 친하게 지내지 않는다느니, 가정에 문제가 있다, 혹은 감독과 의견이 맞지 않는다. 등등.



모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말한다는 식으로
 험담을 변명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도 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그와 같은 투기는 그 과정에서 항상
 영감이 빠져 있다. 그들은 사건과
 인간 관계와 개인적인 영향을 토대로
 한다. “분명한 선택”이 부름받는다면
 그 영예는 누가 받게 되는가? 분명히
 주님은 아니다. ‘영의 확인을
 추구하고 받은 합당한 신권 지도자도
 아니다. 암암리에 그 저변에 깔린
 정책과 이유에게 영예가 돌아가게
 된다.

때로는 예상의 대상이 상처를
 입는다. 언젠가는 어떤 사람이
 감독으로 부름받으리라고 사람들이
 공공연히 예상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그들의 “후보자”였음을 알려 주기까지
 한 경우가 있었다. 그는 자신이
 부름받게 되리라고 느끼지 않았으며,
 그러한 말이 오고 잠에 따라 그는
 마음이 크게 불편했으며, 새로운
 감독이 지지받은 뒤에 질문을 받고,
 “위로”의 말을 들으면서도 역시
 그러했다.

예상은 신앙을 약화시키고, 간증을
 손상시킨다. 부모들이 그러한 예상을
 말하는 것을 듣는 자녀들은 무엇을
 배우게 되는가? 비회원이나

주도자들은 활동적인 회원들—그들의
 역할의 본보기가 되는—이 그러한
 예상에 몰두하는 것을 듣게 되면
 어떠한 것인가?

“횡령”

때로 회사의 고용인이나 간부가
 그에게 맡겨진 돈을 착부하여, 파산
 지경에까지 이르게 하는 수도 있다.
 기밀에 속하는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특권을 잘못 사용할
 때도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생활에 대한 개인적인
 정보는 그것이 아무리 우리 앞에
 떨어진 것이라 해도 우리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우리의 것은 아니다.
 그 당사자가 우리에게 기밀을 털어
 놓았다면, 그 정보는 신용으로 맡겨진
 돈과 같은 것이다. 단지 그것이 우리
 소유물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많은 사회에서는 변호사, 의사,
 성직자 및 그와 같은 사람들에 의하여
 기밀의 정보가 오용되는 것에 대하여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대체로 우리는
 일반에게 알려지게 되기를 원하지
 않는 우리 생활의 사적인 문제에 대한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 친구와 친지의
 성실성을 의지해야 한다.

특히 배우자를 위시한 가족들은
 신임받고자 하는 욕구를 가장 크게
 갖고 있다 하겠다. 그들은 상호간에
 가장 큰 기밀을 간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믿음을 깨뜨리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약 18년 전에
 함께 일한 적이 있는 두 사람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내가 약혼을
 하고 결혼할 것임을 안 그들은 내게
 그들의 아내에 관한 극히 개인적인
 것을 말하려 들었다. 나는 그런
 소리를 듣기를 원하지 않았으며, 할
 수 있는 한 빨리 그 사람들 앞에서
 빠져 나왔다. 나는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았으며, 그들의 아내는 그러한
 배신적인 태도에 혐오감을 느낄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친절하게
 말할 만큼 성숙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그때에도 나는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 크게
 잘못되었음을 알았고, 나는 결코 내
 아내를 그러한 방법으로 배반하는
 일은 없으리라고 맹세할 만큼은
 성숙했다.

교회에서 우리는 정보를 횡령하려는
 유혹을 적극 막아야 한다. 제시된
 변화나 부름에 대한 특별한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의
 생활에 대한 민감한 내용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정보를 우당치 못하게
 나타내고자 하는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 특별히 노력해야 한다. 이와
 같이 주의하는 것은 감독과 기타 신권
 지도자에게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보조 조직 지도자, 가정 복음 교사 및
 방문 교사, 참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은 모범과
 교훈으로 후세대에 전달될 수 있는
 바람직한 속성이다. 현재 교회 공보과
 책임자로 일하고 있는 리차드 피
 린드지는 내가 아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는 신뢰를 지킨다는
 면에서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다.
 그는 그가 젊었을 때 그에게 귀중한
 교훈을 가르쳐 준 사건을 이야기한
 일이 있다.

신혼 시절 린드지 부부가

캘리포니아로 여행을 막 떠나려 할 즈음에 75년간의 역사를 지닌 그들의 와드가 처음으로 나뉘어지게 되었다는 광고를 들었다. 이미 고인이 된 린드지 형제의 부친은 여러 해 동안 와드의 감독으로 있었으며, 따라서 그 새신랑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 부부는 마을에서 벗어나 당분간은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없게 될 것이었다.

린드지 형제의 장인이 당시 고등 평의원으로 일하고 있었으므로, 그들이 떠나기로 되어 있는 시간이 거의 다 되어 린드지 형제는 장인에게 가서 새 감독의 이름을 자기에게만 말해 줄 수 없는지를 물었다. 어쨌든 그들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터였다.

고등 평의원은 그의 사위 곁으로 바짝 다가서서 은밀하게 “자네 비밀을 지킬 수 있겠는가?”하고 속삭였다.

“물론 그렇습니다.” 짧은 사위가 장인에게 다짐했다.

“나도 역시 그렇다네.” 이것으로 이야기가 끝났다. 그러나 거기서 배훈 교훈은 끝나지 않았다.

1980년에 교회 근로자들에게 주는 말씀에서 보이드 케이 팩커 장로는 조셉 앤더슨 장로를 흠모하는 말씀을 하셨다. “그는 거의 50년간 대관장단 서기로 일했습니다. 그는 날마다 그들과 함께 앉아 그들의 상담 내용을 듣고,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50년간 그 신뢰가 한번도 깨진 적이 없었습니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장로는 조셉 앤더슨 장로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아는 그 누구보다 아무리 많은 말이 오고 가도 조용히 있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필름 강의 시리즈, 1980년 1월 18일)

“시장”

돈이 소비되는 시장이 있는 것처럼, 정보의 시장도 있다. 잘못 사용된 정보는 혼히—이렇게 말해도 되겠는가?—험담이라고 하는 시장에서 가장 흔하게 소매된다. 그 곳에서 그것은 공공연히 행세한다.

확실히, 험담의 주제를 다루지 않고서는 신뢰에 관한 토론은 있을 수 없다. 불행하게도 “험담”이라는 말은

“회개”라는 말과 상당히 비슷하다. 험담을 듣기를 무엇보다도 요구하는 사람은 합리화하려는 명목을 내세워 이내 물러서고 만다.

험담에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바로 그것이다. 그것은 합리화시키기가 아주 용이하다. 다른 사람이 그 말을 하면 그것은 험담이 된다. 내가 할 때는 어떤 사람과 친밀한 이야기를 주고 받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도둑은 도둑이고, 간음은 간음이다. 행위에 따라 그 명칭이 따라 붙게 된다. 그러나 험담은 악명으로 떠돌아다닌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실체가 없는 소문인 경우만을 험담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어떤 것은 완전히 참된 것이면서도 여전히 아무도 관여할 바가 아닌 것도 있다. 도둑질이 정당화되지 못하듯이, 진리는 험담을 정당화시키지 못한다. 모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말한다는 식으로 험담을 변명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도 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때로는 험담을 이웃에 대한 관심으로 가장할 때도 있다. 사람들은 제삼자의 문제점과 약점만을 낙담스럽게 이야기하며, 친밀한 면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되풀이한다. 그리고 그들은 항상 단순히 슬픈 진리를 반복해 말하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정당화시킨다. 그것은 나로 하여금 어떤 책에서 상습적인 험담가인 주인공이 다른 사람의 문제점을 알게 될 때마다 “슬픔을 반영”하는 것으로 묘사되었던 것을 상기시켜 준다.

험담에 따르는 중요한 문제점은 그것이 “참된” 험담이라 해도 대개는 말과 행동만이 이야기된다는 것이다. 동기라든가 상황 참작, 그 뒤의 회개 또는 시정 사항은 대개 쏙 빠져 버리게 된다. 동기가 이야기 속에 포함되는 경우는 대개의 경우 추측된 것이다. 다른 사람의 동기에 대한 인간의 공통된 속성이 그들에 대한 우리의 느낌을 정당화시킨다는 것이다. 이야기하는 사람이 대상 인물에 대하여 동정심을 품고 있다면, 그에 속한 동기는 순수한 것이다. 동정심을 갖지 않게 되면 비열한

동기가 등장하게 된다.

물론 우리는 서로 관심을 보여야 한다. 또한 정보 교환 장소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 우리는 말하기에 앞서 우리의 동기를 살펴보고 이모저모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일단 어떤 것이 공개되면 그것은 다시 거두어 들일 수 없다. 정보가 그릇되게 사용되면 개인 및 단체에 큰 해를 입힐 수도 있다. 우리가 신용을 지킬 줄 알게 되면 상당히 많은 분쟁과 불만을 피할 수 있다.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장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잠언 26: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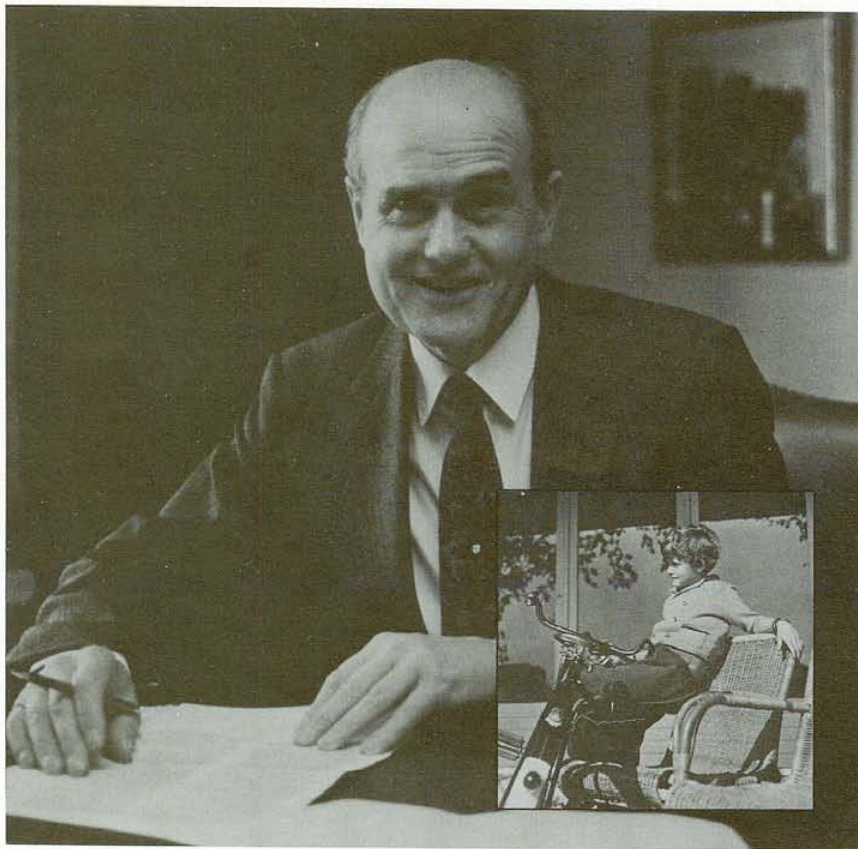
우리가 정보를 대하는 태도는 돈을 다루는 면이 그러하듯이 우리의 성숙과 성실도를 여실히 말해 준다. 대개의 경우, 주님의 사업에서의 우리의 가치관은 우리가 기꺼이 일에 임하는 태도에서만 아니라, 정보를 보호하는 우리의 능력에서 우리가 얼마나 믿음직한 태도를 보이는가에 따라 좌우된다. 안심하고 정보를 맡길 수 있는 사람으로 크게 존경받을 수 있다.

우리는 의사 소통시에 올바른 판단력을 사용함으로써 신뢰감을 강화시킬 수 있다. 우리가 언어 구사를 신중하게 하면, 적이 우리들을 분열시키려 하거나 우리를 대적하여 맞서게 되는 기회를 줄이게 된다.

방언의 은사, 의사 소통하는 능력은 우리가 신성하게 물려받은 것으로서 그것을 잘못 사용할 때, 우리는 다만 해를 받을 뿐이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마태복음 12:36-37)

성도의 첫 교회 본부 편집장인 래리 힐러씨는 감독을 역임했고, 현재는 테일러스빌 유타 센트럴 스테이크의 고등 평의원으로 봉사하고 있다.



에프 엔지오 부쉬 장로 : 세상 끝까지

젠 유 핀보로우

칠 십인 제일 정원회의 에프 엔지오 부쉬 장로의 어린 시절은 전원적이었다고 묘사할 수 있겠다. 독일 서부 지방의 도르트문트에서 훌륭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그는 그의 부친이 직접 설계하여 지은 아름답고 넓적하게 지은 돌집에서 네 자매와 함께 자랐다. 자상하게 늘 보살펴 주시는 그의 부친은 언제나 가족을 위해 흠잡을 데 없는 환경을 마련하여, 자녀들이 몇 시간씩 즐겁게 밖에서 뛰어놀 수 있는 넓은 땅과 가족을 마련해 주었다. 한스 크리스찬 안데르슨과 그림 형제의 책이 그의 입문서가 되었으며, 그들의 동화와 민화는 그의 놀이의 상상의 무대를 꾸미는 바탕이 되었다.

그러던 중, 1939년-엔지오가 아홉 살이 되었을 때-영국의 첫번 폭탄이 도르트문트에 떨어졌다. 그 뒤를 이은 무서운 전쟁이 그의 평화로운 세계를 짓부수었고, 그의 어린 꿈을 산산히 파괴해 버렸다. 그의 가족은 독일의 동부로 갔다가 다시 남부로 피난갔으며, 그 곳에서 그들은 두

개의 방에서 기거했다.

열 살이 된 엔지오는 당시 10세에서 18세까지의 모든 청소년이 필히 가담해야 했던 히틀러 청소년당의 일원이 되었다. 그 후, 전쟁의 막바지에 이르러서는 14세 이상의 모든 히틀러 청소년 당원들은 제삼 독일 군대에 강제 징집되었다. 예기치 않게, 열 네 살된 엔지오도 군인이 되었다. 끔찍한 군대 생활의 공포와 재난 속에 수주일을 지낸 그는 포로로 잡혀 미국인 포로 수용소로 끌려갔다. 그는 그 곳에서 끔찍없이 총살 당하리라고 믿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는 하나도 다친 곳이 없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1945년 6월에 도르트문트로 돌아온 엔지오는 미국인의 폭격으로 폐허가 된 그의 집터에 작은 피난처가 서 있는 것을 보았다. 다행히도 부쉬 가족은 것을 팔 양과 몇몇 다른 가족과 함께 감자를 재배할 땅을 조금 가지고 있었다. 역설적인 것은, 전쟁의 어떤 행위가 도르트문트 교외의 사람들이 그 후 여러 달

동안의 기아 선상에서 생존하는 데 도움이 된 것이다. 전쟁이 끝나기 직전에 미국인들이 독일 물자 수송 화차에 폭격을 가했다. 피격당한 차량에서 당면이 쏟아져 내리자 마을 사람들은 그릇마다 자루마다 끈적끈적한 생명 구조 식량을 가득 채웠으며, 그것은 그들이 2년 동안 지탱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었다.

1946년에 가서야 도르트문트에 있는 학교가 다시 문을 열었다. 그러나 젊은 엔지오의 남은 고등학교 시절은 그가 깊은 의문을 품고, 깊은 혼란에 빠졌던 시기의 시작이었다. 전쟁 전에는 선생님들이 히틀러주의를 독일 병폐의 치료제로 찬양했으나, 이제 그들은 그러한 것을 가르쳤음을 부인했다. 성인들은 옳고 그른 것도 구별하지 못했는가? 그의 환멸이 깊어질수록 그는 점점 더 냉소적이고 우울한 탐색자가 되었다.

본과 프라이버그 대학을 수료한 뒤, 그는 이제 전쟁의 재해에서 차츰 회복기에 있는 부친의 작은 인쇄소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엔지오는 필요한 기술 면허를 얻기 위해 인쇄업에 관한 좀더 기술적인 면을 익혔다.

그는 여전히 인생의 참 의미에 대하여 의문을 품고 있었다. 기독교를 역사적인 측면에서 살펴본 그는 그다지 마음에 끌리는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철학과 동양 종교에 관한 연구도 역시 그에게 시원한 해답을 제시해 주지 못했다. 어떻게 결혼하여 자녀들을 이처럼 잔혹하고 예측할 수 없는 세상으로 데려올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는 자신의 충성을 바칠 수 있는 어떤 가치관이나 의미를 계속 추구했다.

엔지오는 그가 일곱 살 때 처음 만난 아름다운 주타 바움과 오랫동안 사랑을 나누었다. 그때 그가 불룩을 정교하게 쌓아 올려 성당 건물을 다 완성시켰을 때 주타-집안 친구의 두 살난 딸-가 그 방으로 들어와 그의 걸작품을 발로 걷어차 망가뜨렸다. 엔지오는 얼른 팬찮다고 안심시켜 주었다.

엔지오와 주타는 각기 25세와 22세가 된 1955년에 결혼했다. 그러나 결혼 생활도 엔지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사실, 결혼 생활도

그가 희망했던 대로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좌절감만 더욱 심해졌다. 그들이 함께 생활한 초기의 몇 년간은 상호의 목적이 별로 일치되지 않는 것으로 느꼈다. 그들은 불화와 의견 차이로 서로 동떨어져 표류하였다.

이처럼 한때는 비통하게 불행하여 안정을 찾지 못하던 젊은이기 이제는 주님의 종이 되어 생활의 모든 면에서 영의 속삭임에 온전히 겸손하게 따르는 사람이 되었음은 자못 놀라운 일이다.

교회 행정 건물에 있는 그의 사무실 벽에는 에프 엔지오 부쉬 장로의 역사의 단편을 보여 주는 몇 가지가 걸려 있다. 하나는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는 그의 부친의 사진으로, 그는 1964년에 돌아갔으나 정직과 의로움의 면에서 그가 보여 준 모범은 아직도 그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다른 사진은 그가 사랑하는 어린 시절의 도르트문트의 집으로, 전후에 복구하여 지금도 부쉬 장로의 모친이 기거하는 집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개종한 이야기는 부쉬 장로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그가 개심하게 된 경험을 이야기하는 그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경건하고 확신에 가득 찬 음성이 되었다. “나는 죽음을 대면했습니다.”하고 그는 말했다. 사실 그는 간장 질환으로 의사들이 그의 생명 보조 장치를 빼어 내고, 그의 가족들도 그를 방문하여 그가 고통받는 것을 차마 지켜 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앓았다.

그가 분명히 죽을 것이라고 모두 생각한 그 날, 그는 혼자 누워서 심한 고통을 겪으며 다른 세계로 가까이 나아갔다. 거기서 뜻밖에도, 그는 이제는 그가 “영적인 나타내심”으로 부르는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는 그 자신의 몸 밖으로 빠져 나온 듯한 자신을 보았다. 그는 죄에 가득 차 냉소적이며, 불안정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충실하지 못한 사람이었다. 그는 다음 세계에 들어가기에는 깨끗하지 못하고, 아무런 준비가 되지 못한 것을 느꼈다. “나는 누군가 나를 위해서 말해 주고, 나를 도와 주고, 깨끗이 씻어 줄 사람이 없이는 저 세상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고통스럽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새로 시작하고 깨끗하게 되어 전과는 다른 생활을 할 기회를 찾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을 느끼며 여러 날 동안 그런 느낌과 싸웠다. 그런 중에 그는 말로는 합당하게 묘사할 수 없는 성스러운 경험을 했다. 틀림없는 어떤 권능있는 음성이 그에게 말해 주었다. “네가 이제 기도한다면 회복되리라.” 엔지오 부쉬는 현실 세계에서 울려 나온 이 음성이 그의 이전의 모든 지상 생활의 경험을 말할사키는 듯한 권능과 힘을 지닌 것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 그는 그가 알고 있던 유일한 형식인 주기도문을 단순히 암송하는 것 이상의 것을 해야 한다는 느낌을 가졌다. 참으로 진실된 심정으로 그는 단 세 마디 말밖에 할 수 없었다. *Dein Wille Geschehe* (“주의 뜻대로 되옵소서”). 눈 깜짝할 사이에 그의 어둡고 두려운 느낌은 갑작스럽게 밀려오는 기쁨과 평안으로 바뀌었다. “앨마 이세가 죄 사함을 받고 묘사한 대로 나도 경험했다고 생각합니다.”하고 그는 말한다. 그는 또한 온전히 건강을 회복하리라는 확신을 받았다.

병원 침대에 누워 엔지오 부쉬는 세 가지 결심을 했는데, 그것이 그 후의 그의 행동 지침이 되었다. 첫째, 그는 실패하는 다른 세상의 힘을 끊임없이 인식하는 상태에서 생활하여, 전과는 다른 생활을 하겠다고 결심했다. 둘째, 그는 그 경험을 결코 부인하지 않고, 그가 느낀 권능을 항상 간증하기로 결심했다. 셋째, 이 권능의 근원을 찾아 그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세상 끝까지라도 가리라고 결심했다.

“나는 내가 지내는 하루하루의 일상 생활이 아닌 어떤 실재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내가 이전에 느낀 그 어느 것보다도 더 고통스럽게, 더 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야 나는 내가 그때까지 접한 이 세상의 철학과 종교에는 한 가지 공통적으로 결핍된 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지금까지도 그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어느 것도 인간은 인식의 초소에 들어가기에 앞서 영혼 속 깊이 깨끗함을 받고, 의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깨달음을 주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참으로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지연시킨 모든 것에 대한 변명과 경솔함과 편견과 나태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가르쳐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스스로 받아야 함을 가슴 깊이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 항상 새롭게 변화하고 회개하여,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유일하고도 큰 소망을 항상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구세주와 함께 하는 것임을 배우고 있습니다.”

부쉬 장로가 이 권능의 근원을 추구한 것은 그가 회복기의 5개월간 누워 있던 카톨릭 재단의 병원에서 시작되었다. 그는 병실의 벽에 걸린 십자가에 못박힌 예수상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그의 경험의 주인을 찾고자 결심한 것을 추구하기 위해, 그는 먹고 잘 때만 빼고, 쉬지 않고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 페이지까지 다 통독했다. 그로 인해 그는 성경의 진실성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간증을 강하게 인식하게 되었다.

그는 또한 그의 병동의 수 간호원으로 있던 수녀도 살펴보았다. “그녀는 내가 만난 가장 의로운 사람이었을 것입니다.”라고 그는 회상한다. “그녀는 하루 16시간, 일주일의 7일간을 일하며, 늘 밝은 얼굴로 가장 더럽고, 가장 어려운 일을 도맡아하곤 했습니다. 그녀는 너무나 훌륭하고 기쁨에 가득 차, 그녀의 앞에서는 어떤 병도 치유되지 않을 수 없는 듯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카톨릭 교회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지 아닌지를 물었습니다. “그녀는 상당히 오랫동안 자기 자신과 싸우는 듯했습니다.”하고 그는 회상한다. “드디어 그녀는 평화롭고 품위있는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죽은 전통적인 교회가 아니라, 살아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하여 나온 엔지오는 곧장 루터란교 목사를 찾아가 자신의 개심을 말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소망함을 밝혔다. 그러나 가능한 모든 모임마다 다 참석해 본 그는 얼마간의



(상) 제2차 세계 대전 중에 폭탄 투하로 파괴되어 다시 지은 도르트문트의 부쉬 장로의 집.
 (중) 1954년 부쉬 인쇄 회사의 성공적인 사업을 시작했을 당시의 엔지오 부쉬.
 (하) 1954년 엔지오 부쉬와 주타 바움의 약혼 사진.

시간이 지나자, 예배 의식의 품위에는 얼마간 만족했으나, 그가 이해할 수 없는 교리와 관습으로 고뇌했다. 예를 들면, 왜 유아가 침례받을 필요가 있는가? 왜 성직자들이 전쟁 무기를 축복했는가? 교회의 목사와 성직자들은 의견이 분분할 뿐 적합한 교리를 제시해 줄 수 없었다.

어느 날 저녁, 엔지오 부부는 실의에 젖어 주님께 그들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무릎을 꿇었다. 이제는 엔지오도 나름대로 기도할 수 있었다. “나는 주님께 주님의 교회를 찾기를 원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쉬 장로가 회상하는 말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초기의 추종자들이 박해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교회라면 불분명하고 이상한 교회라도 상관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가 끝나자,

병원에 있는 엔지오에게 말할 수 없는 평안감이 찾아 들었습니다.

그 후 몇 주일 뒤에 두 명의 말일성도 선교사들이 부쉬 집안의 문앞에 섰다. 처음에 엔지오 부부는 그들의 “이상한” 메시지에 의심이 들었다. 그러나 그들의 성실성과 의로움으로 항상 깊은 인상을 받았다. 2년간에 걸친 구도 기간 중에 전에 병원에서 느꼈던 성스러움과 권능을 지닌 꿈과 영적인 경험이 여러 번 그에게 나타났다. 결국, 그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메시지에 참된 영이 있음을 느꼈으며, 한편 그로 인해 이제까지 그가 쌓아 올린 사회 생활과 가족의 전통이 무너지게 됨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었다.

드디어 침례받을 만반의 준비를 갖춘 그는 아내에게도 복음에 대하여 연구해 보게 했다. 주타 부부는 때로는 선교사와의 긴 토론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오래 선부터 선교사의 메시지에서 영을 느꼈다. 3일간 선교사들에게서 복음 원리를 들은 그녀는 역시 간증을 가져 남편을 놀라게 했다. 그 두 사람은 1958년 1월 19일에 도르트문트 공설 수영장에서 침례를 받았다.

도르트문트에서도 가장 저지분한 지역에 있는 낡은 학교 건물에서 모인 그들의 첫번째 작은 지부는 자녀들이 미국으로 가 버린 노인들이 대부분이었다. “주님은 가난이나 비참한 환경에도 익숙하십니다.”하고 부쉬는 말했다. “나는 그 곳에서 친근감을 느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받은 부름은 지부 서기였다. 그 후 그는 장로 정년회 회장 그리고 상향회와 주일학교에서 교사로 일했다.

그 즈음에, 엔지오 부쉬 장로는 그의 조국과 도시에서 존경받는, 영향력이 큰 사람이었다. 1955년에 그는 그때까지도 비교적 소규모이긴 했으나, 그의 부친과 함께 부쉬 인쇄사의 공동 소유주가 되었다. 1963년에는 사장이 되었으며, 서독에서 가장 큰 인쇄 및 출판사로 성장하여 많은 자회사와 합자 회사를 두게 되었다.

부쉬 형제는 사업계에서 일찍부터 조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창의성과

참여를 활용하지 않고서는 이 경쟁 시장에서 회사를 성공적으로 경영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다. 교회 지도자로서 경험을 쌓은 그는 권위를 내세우는 전통적인 관리의 형태에 수정을 가하게 되었다. 많이 기도하고 난 그는 평상시 체제에서 전격적으로 변경시킨 참여자의 관리 체제를 설립했다. 그는 어떤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기에 앞서 참여한 모든 사람이 동의해야 한다는 규칙을 세웠다. 고용인들이 성숙해진 것은 결과적으로 그의 회사가 어렵고도 변화가 많은 시대에도 그 분야에서 가장 동적이고 성공적인 회사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엔지오 부쉬는 장로 정원회 회장이나 지부장 또는 그 밖에 부름받은 어떠한 부름에서든지 주님께 봉사하게 된다는 일에 항상 크게 감사하는 마음을 느꼈다. “우리가 개심하면,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마음속 깊이 기쁘게 생각합니다.”하고 그는 설명한다. “우리가 가정 복음 교육을 기쁘게 생각하지 않거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왕국 건설에 도움되는 어떤 일을 시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섬길 수 있다는 것은 큰 특권입니다.”

부쉬 형제가 독일 중앙 선교부에서 보좌가 되어 섬겼던 스티븐 시 리차즈 장로는 그의 보좌가 도와 주어 교회가 대지 구입시에 사회적으로 반대에 봉착했을 때 도르트문트 예배당 부지를 확보할 수 있었음을 회상한다. 엔지오 부쉬는 또한 수많은 교회 회원들을 도와 그들 자신의 간증을 얻게 해주었다. 카티지 미팅(선교부 복음 토론 모임)이 자주 열리는 장소가 된 부쉬 집안은 선교사들에게 언제든지 개방되었으며, 부쉬 장로는 선교 사업을 하고 있는 여러 젊은이들을 뒷받침해 주었다. 리차즈 장로가 다정하게 들려주는 말은 이러하다. “이는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니, 그는 주께서 요구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의심하지 않고 행합니다.”

엔지오 부쉬가 진리를 찾아서라면 세상 끝까지 가겠다는 처음의 결심은 1977년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이

폴랜드와 동독에 갔을 때 평가받게 되었다. 당시 십이사도 정원회 지역 대표였던 부쉬 형제는 베를린에서 가진 모임에서 킴볼 대관장의 말씀을 통역했으며, 그 후에도 상호부조회실에서 가진 다과회에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참석했다. 대관장의 개인 비서인 디 아서 헤이코크 장로가 부쉬 형제에게 의자를 가지고 킴볼 대관장 옆에 가 앉으라고 말했다. 교양있는 독일인도 고귀한 사람의 청을 받기 전에는 고귀한 사람의 곁에 있지 않으려 하는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부쉬 장로는 그 제언을 무시했다. 부쉬 형제가 두번째 제의도 사양하자, 헤이코크 형제는 빈 의자를 가져 오는 친절을 베풀어 주겠느냐고 좀더 강력하게 물었다. 인사를 교환하고 나서, 킴볼 대관장은 부쉬 형제를 다른 방으로 불러 거기서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회원으로 봉사하라는 부름을 주었다.

부쉬 장로가 종관리 역원으로서 처음으로 받은 지명은 독일 뮌헨 선교부의 선교부장으로 봉사하는 것이었다. 그 후, 1980년에 그와 그의 가족(정혼이 되어 독일에 거주하는 장남 마로쿠스 제외)은 유타주로 이주하라는 부름을 받았다.

과거를 돌이켜 보는 부쉬 장로는 병원 침상에서 그가 기꺼이 하겠다고 주님께 말씀드린 모든 것을 하라는 명을 받았음을 깨닫게 된다. 그는 그의 가족과 그의 언어와 그가 물려받은 문화 유산, 그의 친구—그가 쌓아 올렸고, 익숙해 있던 모든 것의 곁을 떠나라는 명을 받았다. “나는 알레스카 북부가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세상 끝까지 가라는 명도 받았읍니다.”하고 그는 미소짓는다. 그가 지금 지명받은 과제는 북극을 포함한 지역인 북미의 북서 지역 회장단의 보좌역이다.

부쉬 장로는 교회에서 생활하는 동안 그가 받은 무거운 임무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한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악마의 가장 큰 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은 참으로 해내기가 힘들고, 불가능하다고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면, 주님은 사랑과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가득 채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주님께 속이지 않으면, 우리는 다만 좌절감과 고통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머리숙이고 주님 뜻에 따른다면, 어떤 환경하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평안과 위엄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승리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그의 아내와 네 자녀—들도 엔지오 부쉬의 가장 뛰어난 업적은 남편과 아버지로서 보여 준 감수성에 있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 부쉬 자매는 이렇게 말한다. “선교사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은 우리 생활을 전반적으로 바꿔 놓았어요. 그것은 참으로 우리, 우리의 결혼 생활과 가족에게 큰 축복이 되었읍니다.”

부쉬 자매는 그녀의 남편은 다른 사람들 특히 그의 자녀들의 말에 반응을 보이는 특별한 능력을 지녔다고 말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사람들에 대하여 좋은 감정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들을 사랑할 수 있고, 그들을 이해하고 도와 줄 수 있지요.” 그녀는 한 아들이 결혼과 선교사로 나갈 것인가의 어려운 선택을 앞에 두었을 때의 일을 이렇게 말해 준다. 부쉬 일가는 당시 문헌에 있는 선교사 관저에서 지내고 있었으며, 그 아들과 여자 친구가 그들을 찾아왔다. 부쉬 장로는 아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너를 사랑하고, 너는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이다. 네가 결혼해야 되겠다고 생각해도 우리는 여전히 너를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네가 결정하기에 앞서, 네 방에 들어가 하나님 아버지께 여쭙어 보거라.” 아들은 눈물이 가득한 채 방에서 나와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부쉬 장로는 그와 그의 아내를 전통적인 독일식의 자녀 교육 방법이 세대간에 큰 격차를 이루게 한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는 부모를 모욕하는 자녀, 또 단순히 먹여 주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를 두게 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자녀들을 강제로 교회에 데리고 가서 그들이 우리에게 반발하게 되는 것을 원치 않았읍니다.”

부쉬 장로는 그와 마찬가지로



부위 장로 내외가 그들의 몇몇 가족과 함께 앉아 있음. 왼쪽부터 왼쪽으로부터 아들 다니엘, 자부 파트리시아 클레이 부위, 아들 마티스, 딸 마자 부위 웬셀, 손자 윌립 아더 웬셀. (사위 폴 웬셀이 안고 있음)

자녀들이 아주 어려서부터 자녀들에 관하여 그들에게 가르쳐 준 영이 있었음을 느끼고 있다. 자녀들이 서너 살 때였을 때도 부위 장로는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고자 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서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가를 알면 큰 놀라움과 감동을 받게 됩니다.” 하고 부위 장로는 말한다. “자녀들이 위협적이 아닌 환경에서 자라게 되면, 그들은 순진 무구하게 되고, 어른들이 당혹하리만큼 사랑스럽고 감수성이 강하게 됩니다.”

딸 마야(폴 웬셀 부인)는 아버지의 교육 방식은 결코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자녀와 함께 옳은 길을 찾는 것이었음을 기억하고 있다. 그는 “예수님은 좀 달리하셨을거다.”라는 말을 자주하곤 했다.

“내가 전에 유리창을 깨 일이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나오셔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네가 무언가 잘못했구나. 네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일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무슨 일을 해야 하겠구나.’” 사실상, 부위 부부는 자녀들이 스스로 가하는 형벌은 부모가 내리는 것보다 더 심하다는 것을 알아냈다.

작년에 아르헨티나 선교부에서 귀한 막내 아들 다니엘은 아버지를 사랑이 많은 선생님이라고 묘사한다. “우리가 야구 게임에서 이겼던 날 밤,

나는 새벽 두 시까지 집에 돌아오지 못했어. 나는 차를 몰고 오다가 아버지가 밖에서 기다리고 계신 것을 보고는 두려움에 질려 온갖 구실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나를 꾸중하지 않고 ‘무사히 돌아와서 기쁘구나. 내일 이야기하자.’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가 잘못했다는 것도 알았지만, 아버지께서 나를 염려하시고 도와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자녀들이 집안에서 좋은 분위기를 느꼈던 이유 중에는 그들의 부모가 고전 음악을 사랑한 것도 들어간다. 부위 자매는 음악가 집안 출신으로 바하와 라흐마니노프 음악을 사랑한다. 부위 장로 부부는 아름다운 음악은 가정 안에 훌륭한 영을 심어 줄 것이라고 늘 믿어 왔다. 마야는 이것이 그녀의 마음을 깨끗이 하고, 세상의 많은 것에서 현저한 차이를 가져 오게 했다고 말한다.

마티아스(파트리시아 클레이와 결혼)는 그의 부친을—항상 가정의 밤 공과를 준비한—훌륭한 선생님일 뿐만 아니라 훌륭한 동반자로 생각한다. 부위 장로는 스키, 달리기, 등산 및 보트타기 등에 취미가 있는 활동적인 사람이다. 마티아스는 이렇게 말한다. “발틱해에서 함께 보트를 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는 아주 위험한 지경에 처했으며, 그 일로 우리는

아주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일은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가 좋아하는 시간은 긴장을 풀고 노는 때와, 교회 모임에 오고 가면서 오랫동안 사려깊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는 한 가정의 가장이다. 기업가이고, 교회 지도자이다. 그러나 에프 엔지오 부위 장로의 참된 직업은 지칠 줄 모르는 진리 탐구에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그는 그의 기본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았지만, 자신이 결심한 바에 자신의 인생을 바치려고 노력하고 있다. “교회의 많은 회원들이 영적으로 굶주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 생활의 모든 면에서 영을 찾고 구별해 낼 줄 압으로써 우리 존재의 영적인 부분에 영양을 대 주어야 합니다. 인생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약에 따라 생활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영으로 가득 차 있다면, 어떠한 사태하에서도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부모와 자녀간에 좋은 관계를 맺고, 평화롭고 품위있는 생활을 하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에프 엔지오 부위 장로로서는 그가 추구한 것의 끝이 결국 영원한 시작이었다. *

나의 명예에 관하여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하나님께
엄숙하게
성약을 맺은 대로 생활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존경하는 합당한
생활이 되도록 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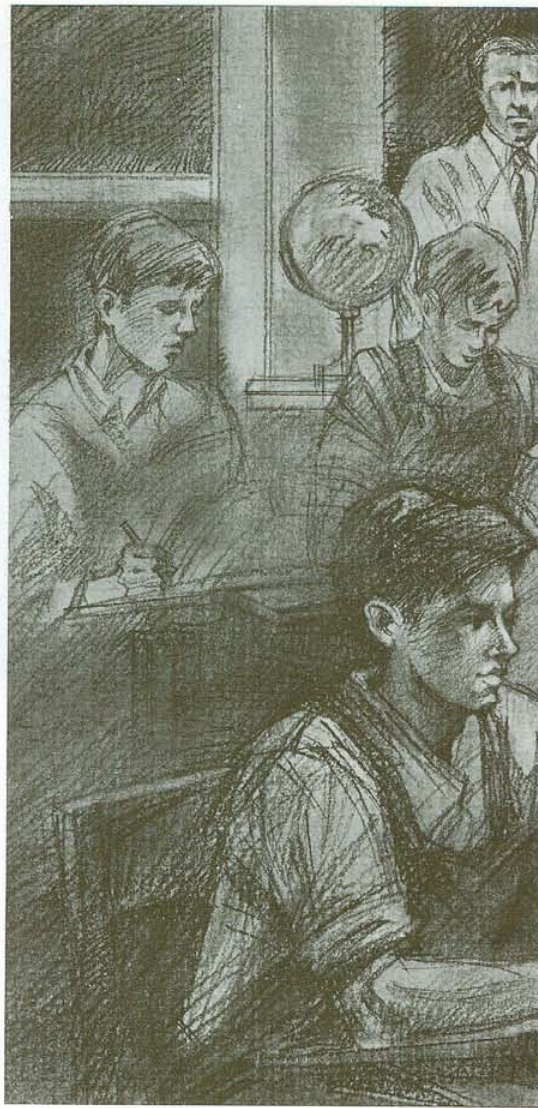
인 품의 의미를 묘사하는 하나의
말말이 있다면, 그것은 명예라는
말입니다. 명예가 없다면 분명 사회는
오래 지속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명예가 없다면 믿을 만한 계약이나
항구적인 결혼 생활, 믿음이나 행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명예라는 말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뜻합니까? 내
생각에는 명예란 시인 테니슨이
“인간이 하는 말(명예로운)은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한
것으로 요약됩니다. 명예로운 남자
또는 여자는 신실되며, 기만하지
않고, 속임, 거짓, 도적 또는 기타
어떤 형태로든 남을 속이려 들지 않는
것입니다. 명예로운 사람은 그릇된
행위를 하지 않고 옳은 것을 느끼는
것을 일찍 터득하는 사람입니다.
인간의 성품은 자신이 한 말과 약속을
어떻게 지키느냐로 판단됩니다.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그들이 약속한
것을 명예롭게 지키지 않는 것이 점점
더 일반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유명한
운동 선수들이 변호사를 고용하여
그들의 계약 파기, 결혼 합의서의
파기, 불필요한 개인적인 파산 행위,
사기 행위 및 기타 부정 행위로부터
빠져 나가는 도움을 받고 있다는
기사를 읽은 일이 있습니다. 인간이
명예로운 일을 하는 것이 특별한 것이
된 이상, 명예는 뉴스 거리가 될
정도가 되었습니다.

개인간의 약속이 중요한 이상,
인간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은 더욱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인 여러분은 침례받을 때 주님과
약속을 맺습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은
성약의 자녀라 불리는 것입니다.

그 성약의 일부로,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범사에 하나님의 증인이”(모사이야서
18:9) 되기로 합의했습니다.

침례받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기로 동의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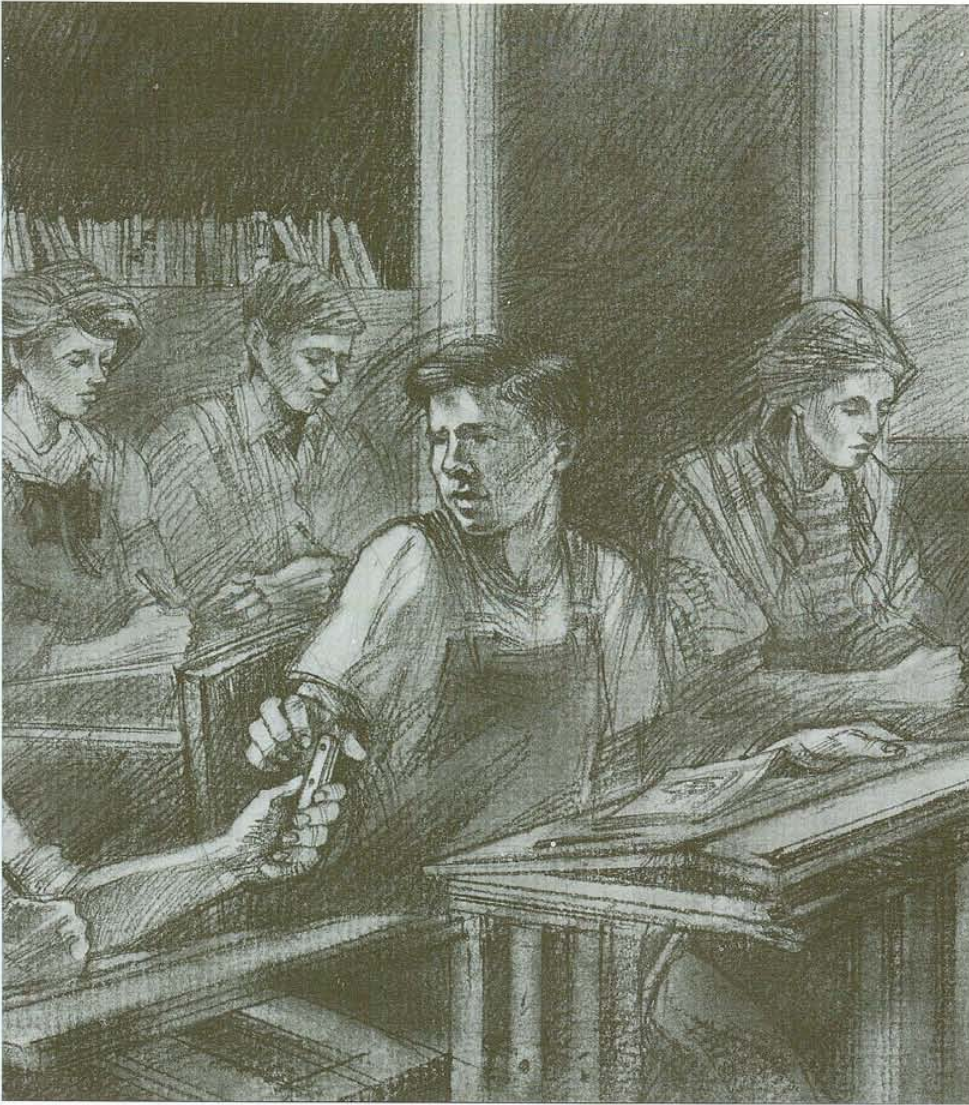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러한 것이
무엇인지 또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지 못한 채 방황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교회 회원으로서 어떻게 생활해 나갈
것이냐에 대하여 아주 구체적으로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십계명과 산상 수훈과 말일의
게시에 구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십계명은 하나님과
가족과 우리 이웃에 대한 우리의
관계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율법을 다시 읽어 보십시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베풀
있게 말찌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상 네 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다음
 계명은 어떻게 우리 가족 관계를
 명예롭게 지킬 것인가를 보여 줍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와 선조를 공경하지 않고서는
 참위대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
 다섯 계명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존중하는 방법을 나타냅니다.
 살인하지 말찌니라.
 간음하지 말찌니라.
 도적질하지 말찌니라.
 거짓 증거하지 말찌니라.
 탐내지 말찌니라. (출애굽기 20 : 3-4,
 7-8, 12-17)

각 개인 개인이 이러한 계명을
 명예롭게 지킨다면, 사회
 전체-개인의 집합체-가 불경을

수치로 여기고, 안식일을 지키고,
 부모와 결혼 성약을 공경하고, 덕을
 실천하는 것을 곧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대로
 생활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으리라
 상상할 수 있습니까?

내 명예가 의심받았던 때로
 기억되는 유일한 것은 고등학교
 시절의 시험 시간이었습니다. 경제학
 시험 시간이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선생님은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는
 동안 교실 뒤에 서서 살펴하시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써
 내려가다가 그만 연필심이
 부러졌습니다. 나는 통로를 사이에 둔
 옆자리의 학생에게 칼 좀 빌려 달라고
 했습니다. 그가 나에게 칼을 전해
 주는데, 선생님이 다가와 "시험지를

내놔라. 그리고 너는 오늘 밤 농구
 게임을 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 팀의 포워드였습니다. 나는
 연필을 깎기 위해 칼을 빌려 달라고
 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으나, 아무런
 설명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날 저녁에 풀이 죽어, 말을
 타고 집에 돌아와 부친에게 일어난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부친은 내가
 정직했음을 확신했습니다. 나는 내가
 정직한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밖에서 우유를 짜고 있을 때
 코치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내가 그날
 저녁에 체육관으로 나와야 하며,
 선생님이 나에게 경기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권유로 마지못해 체육관으로
 가서 그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나에게 부정적을 고백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나는 부정적인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고백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싫지만 하는 수 없이 내게
 경기를 하게 했습니다. 나는 게임에
 되는 대로 임하였으므로 우리가
 졌습니다. 나는 선생님에 대하여
 아무런 악감정은 품지 않았으나(그는
 다만 옳다고 생각한 대로 했을
 뿐이다), 그 사건을 통하여 나의
 이름과 부친의 이름이 비난받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았습니다. 나는 항상
 그와 같이 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행동에 의하여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범사에" 하나님의
 증인으로 서 있습니다. 우리가
 명예로운 행위를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와 왕국에 명예를
 돌리게 됩니다. 그렇지 못할 때는,
 전체 교회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하나님께 엄숙하게 성약을 맺은
 대로 생활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존경하는 합당한 생활이 되도록
 하십시오. *

자유, 평화 그리고 안전

로버트 엘 심슨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진리를 찾아
그대로 생활함으로써
적의 속박의 위협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굳건한 기초의 시작이며,
하나님과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오게 되는
완전한 안전함을 갖고 있습니다.

짐이 이제 만 18살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총관리 역원과 마주앉은 그의 얼굴엔 분명히 초조와 좌절감과 적의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요청은 기다릴 사이도 없다는 듯이, 직선적으로 분명하게 튀어 나왔습니다.

“나는 오늘 교회로부터 파문당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회원이 된 지 얼마나 되었지요?” “3년 가량 되었습니다.” 그가 내뱉은 대답이었습니다.

“왜 그런 요청을 하지요?”

“나의 자유 의지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담배를 피우고 싶은데, 교회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는 자유 의지를 내게서 빼앗아 가고 있어요.”

짐은 그가 자유 의지를 가장 중요하게 행사한 것이 침례를 받고 복음의 표준에 따르는 생활을 하기로 결심했을 때였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짐은 그가 성약을 맺을 때 느꼈던 기상과 영적인 감수성이 점점 무더어진 교회 밖의 같은 또래의 친구들과 사귀게 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이미 자유로운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회있는 대로 선택받은 자를 속이고, 사람들을 진리로부터 멀어지도록 유혹하는 악마의 갖가지 수단과 책략에 빠져 들어간 희생물이 된 것입니다. 짐은 교회가 그에게서 자유를 빼앗고 있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복음의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8:32 참조) 우리는 누구나 자유케 되기를 절실히 바랍니다.

밤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이 경전 읽기를 마치고 전등을 켜고 있을 때, 문을 마구 두드리는 소리가 침묵을 깼습니다. 프랭클린 장로가 문을 열어 보니, 개종한 지



9개월되는 훌륭한 청년인 스티브가 어느 때의 그 미소도 머지 않은 채 손에 종이를 말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프랭클린 장로님, 내 신권 성임 증서를 드리려고 가져 왔어요. 내가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좀 갖고 계세요. 지금은 신권을 지니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곧 다시 가지러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스티브가 만족스럽게 해결할 수 있을 때까지 마음의 평화를 갖는 점 외에는 스티브의 그러한 행동도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신권 부름으로 인한 갈등을 갖는 동안 그는 아무런 평화도 찾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마음의 평화를 필요로 합니다.

수우는 가족이 금식 간증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

마디도 없이 조용히 있었습니다. 너무나 말이 없었기 때문에 그녀의 아버지는 바로 그녀와 단둘이서 말할 기회를 찾았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수우는 자신이 복음에 대한 간증을 실제로 갖고 있지 않다는 환상에 시달렸습니다. 그 날 두세 사람이 복음이 진실됨을 “참으로 알고 있다.”는 표현을 썼는데, 수우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나는 그것이 참됨을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수우의 아버지는 참을성있게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십대에 간증을 키웠던 것이 분명히 기억되었기 때문입니다.

“수우야, 넌 왜 십일조를 바치지?” 하고 그가 물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계명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수우의 아버지는 지혜의 말씀, 금식의 법, 성찬을 취하는 것, 높은 도덕적인 표준을 지키며 기도하는 것 등을 포함한 몇 가지 기본적인 원리들을 수우와 함께 부지런히 되새겨 보았습니다. 이 모든 원리에 대해 수우는 능동적이었고, 즉시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곧 수우는 아버지에게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아빠, 아빠가 말씀하신 모든 것에 대해 정말 일종의 간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해하는 것들에 대해 간증을 갖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우리 모두가 간증을 갖는 방법입니다. 수우는 아버지가 그녀에게 그녀가 많은 진리에 대한 간증을 키우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기 전까지는 그녀가 사랑하는 이 교회에 분명히 안전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참된 안정은 간증을 발전시키는 데서 오게 됩니다. 다행히 우리는 이곳 지상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간증을 발전시키고, 우리의 간증을 키우고, 받아들이는 새로운 진리와 함께 보게 되는 안전함을 느끼기 위해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안전을 대단히 필요로 합니다. 태초부터 사람들은 자유로와지고자 했습니다. 사람들은 수세대를 걸쳐 참으로 안전이 필요하다고 느껴 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이 강약해지고 완악해지게 되면 실제로, 그리고 진정으로 마음속 깊이 평안함을 느끼고자 합니다.

우리가 말일성도로서 어떤 시대에도 지구상에 내렸던 적이 없었던 가장 위대한 진리의 홍수의 관리인이라는 사실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중요한 목표는 유리한 위치에 서서 이 계시된 진리를 기꺼이 나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세주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한복음 8:32)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살아 계신 예언자의 말씀에 귀기울이고, 그의 가르침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평화는 이 세상에서 중요한 목적인 듯이 여겨지며, 항상 그래왔습니다. 지구상의 평화는 구세주의 탄생을 알린 하나님의 사자들이 선포한 중요한 메시지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세 전쟁을 치르면서 수많은 말일성도 젊은이들은 박격포탄과 폭탄 로케트가 도처에서 그들의 삶을 위협하는 동안 참호에 있었습니다. 불가지론자들은 지난 2,000년 동안 인간들 사이에 평화가 없었으며, 단지 전쟁과 다툼 뿐이었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실패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전은 우리에게 이 필멸의 시험 기간에는 다툼, 전쟁 및 전쟁의 소문이 만연할 것인데 특히 말일에는 더욱 그러리라고 말해 주고 있습니다. 구세주께서는 이것을 아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요한복음 14:27) 그는 의심없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영광”(빌립보서 4:7)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영광—이 영광은 개인적인 간증에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로 폭탄과 유탄 등이 사망에서 떨어지더라도 참호 속에서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평안은 어떠한 조건이나 상황하에서도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 계시니.”(욥 19:25 참조)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항상 임합니다. 마음의 평안은 간증이

커가는 것에 수반됩니다. 그러나 커가는 간증이 너무 오랫동안 동면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종류의 평안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이 실제로 역사상 이 시점에서 성스러운 숲에 나타나셨다는 것 또는 하늘이 열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는 권리인 신권의 권능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앞으로써 참으로 안전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구세주께서 인류를 위해 세우 놓으신 모범대로 침수로써의 침례가 그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는 권능을 갖고 계신 한 분 즉 침례 요한을 찾으셨습니다.

그들은 함께 “물이 많은”(요한복음 3:23; 마가복음 1:5) 곳으로 갔으며, 경전에는 구세주께서 “물에서 올라 오실새.”(마가복음 1:10)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알 필요가 있는 일종의 안전함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의 평안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사랑하는 아들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기초로 하는 개인적인 것이라는 사실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간증을 키우는 것은 진리에 대한 이해력을 발전시키는 것이나 구세주를 사랑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과 어떻게 닮습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요한복음 14:15) 그렇게 하면 여러분과 내가 자유로이 나누고자 하는 평안이 주어지게 됩니다.

오, 시온의 젊은이들이여! 다른 무엇보다도 이 일에 굳게 서십시오. 세상은 여러분이 손 안에 넣고 있는 것을 위해 모든 것을 제공할 것입니다.

진리를 찾아 그대로 생활함으로써 적의 속박의 위협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굳건한 기초의 시작이며, 하나님과의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오게 되는 완전한 안전함을 갖고 있습니다. *



성신으로부터 온 증거

알린 피 네서

고등학교 및 대학 초기 시절을 통해서, 언제나 진리를 이해하려면—그것도 이해할 수 있는 진리가 있다면—광범위한 연구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따라서 종교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내가 늙어서 회색 머리가 되어 수많은 연구와 비교를 하기 전에는 참진리를 정말로 찾게 되겠느냐는 좀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광범위한 연구를 하기 전에도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중요한 면에서 인식하게 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선교 사업 경험을 한 후의 일이었다. 그렇다고 일단 진리를 이해하면 연구가 필요없게 된다는 말은 아니다. 오히려 자신이 배우고 있는 것이 참진리라는 것을 일단 인식하게 되면 그 연구를 새로이 더 강조하게 된다. “신앙으로써 학문을 구하라.”(교성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신을 통하여
우리에게 진리에 대한
증거를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큰 봉사를 해주시는 것이다.

88:118)는 주님의 훈계에서 이런 새로운 강조가 반영된다.

“이런 것을 받으라”

갑자기 종이에 빗방울이 튀겨서 번지와 아파트 번호를 얼룩지게 했다. 방문 수첩에 급하게 갈겨 쓴 나머지 부분을 번역하면 “오른쪽의 첫 아파트에 사는 유고슬라비아 여자를 찾아볼 것”이라는 말이었다. 나는 “클쎄, 문에서 잠깐 소개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며 물문경을 설명하는 것은 생략하게 될거야. 어쨌든 그 여자는 관심이 없을거야. 오늘은 내 젖은 외투에 스며드는 비처럼 정말로 춥고 단조로운 하루였어.”라고 생각했다.

나의 새 동반자가 마음내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선교사 소개 토론을 다시 내가 맡게 되었다. 나는 그에게 격려의 말을 하기에는 너무 피로하고 춥고 짜증이 나 있었다. 우리가 그 아파트 입구로 찾아가는 동안 나는 배낭을 한쪽 어깨에서 다른 어깨로 옮겨 매었다. 그 배낭의 밑바닥에 있는 독일어로 된 물문경 두 권이 내 등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그것은 그날 아침 내 반대를 무릅쓰고 내 동반자가 거기에 넣은 것이었다.

나는 사람들과 첫 토론을 할 때 물문경에 관하여 말하는 것과 독일어로 된 물문경을 갖고 다니는 것을 꺼리는 것을 다음과 같이 합리화하고 있었다: 우리는 일시적으로 독일에 사는 대부분의 유고슬라비아 노무자들이 읽을 수 있게 번역된 물문경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이 유고슬라비아 노무자들의 대부분의 모국어는 세르비아말이었다. 그들이 알 수 없는 것으로부터 어떻게 스스로 간증을

얻을 수 있을까? 그들에게 물문경이 판독할 수 없는 것같이 보인다면 어떻게 모로나이가 훈계한 것처럼 “이것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사실상 일부는 독일어를 읽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그 언어에 익숙하지 않았다.

어쨌든 나와 동반자는 그 아파트의 계단을 올라갔다. 우리는 문을 두드리려고 돌아서는 순간 어떤 여자가 방금 손으로 세탁한 옷을 담은 큰 통을 안고 지하실로부터 나선형 시멘트 계단으로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울퉁불퉁한 손에 박힌 못자국은 그녀의 얼굴의 단정한 용모와 검은 머리와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그녀의 검은 머리는 밝은 색 스카프 밑으로 단정하게 뒤로 늘어뜨려져 있었다.

나는 천천히 아파트 문으로부터 물러서며 그녀에게 인사했다. 나는 우리가 선교사라는 것을 밝힌 다음 시간이 너무 늦었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올 수 있다고 별로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말했다. 그러나 그 여자는 우리를 자기 아파트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다.

우리는 안으로 들어가 곧 첫째 토론을 내가 줄여서 가르쳤으며, 요셉 스미스와 첫번째 시현과 물문경에 관하여 말했다. 나는 방금 말한 것의 참됨에 대하여 간증하고 더 알고 싶냐고 물었다. 물론 그때 그녀가 아니요라고 말하고, 나가 달라고 말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여자는 자신이 볼 물문경을 한 권 갖고 있느냐고 묻는 것이었다. 즉시 내 동반자가 배낭에서 하루 종일 내 등을 찼던 독일어로 된 물문경을 꺼냈다. 그는 마치 “내가 그렇게

말했지요!”라고 말하는 것처럼 빙긋이 웃었다.

나는 그 책을 그녀에게 내밀면서 독일어를 읽을 줄 아느냐고 물었다. 그 여자는 모른다고 했다. 나는 불행히도 우리에게는 그녀가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물문경이 없다고 말하면서 그 책을 도로 집어 넣으려고 했다. 그러나 그 여자가 그 책을 달라고 해서 다시 주었다. 그 여자는 거치른 손으로 요셉 스미스, 모로나이 및 고대 아메리카 문명의 사진이 있는 앞 부분의 몇 장을 가만가만 넘겼다. 그 여자는 그 사진에 관하여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그 책을 며칠간 자기에게 맡겨 두도록 부탁했다. 자기에게는 독일어를 아는 친구가 있으며, 그 친구에게 보여 주고 싶다고 했다.

그 순간, 내 마음에는 즉시 비슷한 사건이 떠올랐다. “친구”가 우리 교회에 대하여 매우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다른 교파의 지도자인 것이 나중에야 판명된 그런 경우였다. 그러나 나는 마침내 동의하여 그녀에게 물문경을 갖게 해주었다. 우리는 다시 올 날을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다. 단지 며칠내에 다시 오겠다고만 말했다. 우리는 떠났으며, 동반자는 이 모임이 상당히 성공적이었다고 했다. 그는 우리가 정말로 틀림없는 구도자와 접촉했다는 것을 확신한다고 했다. 나는 여전히 상당히 의심하면서 회의적으로 “그럼”이라고 중얼거렸다.

며칠 후, 내 동반자가 그 날 하루 활동을 계획할 차례가 되었다. 그는 우리가 독일어로 된 물문경을 준 그 유고슬라비아 여자에게 다시 가 보자고 했다. 나는 찬성했으나

틀림없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우리는 그녀의 집을 방문했고, 곧장 나는 물문경을 친구에게 보여 주고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 물었다. 그 여자는 지난 며칠 동안 친구를 만날 수 없었으나 자기가 직접 그 책을 살펴보고, 그림을 보며 연구하고, 내가 모로나이가 성도들에게 훈계했다고 말한 그대로 이 책의 참됨에 관하여 기도까지 했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이 책이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고 느낀다고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어안이 벙벙했다. 너무나 많이 거부당했던 터라, 그녀가 진심으로 하는 말인지 좀 확실히 믿기 어려웠다. 나는 다시 그녀가 독일어를 읽을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여자는 다시 독일어를 읽지 못한다고 반복해서 말하고는 그러나 우리 토론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기도했다고 말했다. 나는 처음에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나는 어떻게 그녀가 읽지도 못하는 책에 대하여 간증을 가질 수가 있담! 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는 동안 내 동반자는 그녀가 정말로 물문경이 참됨을 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생각에 신이 났다. 그는 나에게 그 여자를 더 가르치라고 했다. 나는 아직도 그 상황을 의심하면서 요셉 스미스의 토론과 첫번째 시현을 다시 살펴보았다. 그 날의 모임을 끝내고, 그 뒤로 몇 번 더 그녀를 방문했다. 그 여자는 몇 주간 공부한 다음 침례받았다. 그 동안 그 여자는 자기 스스로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물문경을 받았다.

그 여자가 물문경이 참된 것을 안다고 처음 확인한 이후로 나는 그녀의 복음에 대한 관심과 배우는 능력이 우리가 전에 가르친 다른 구도자들과 상당히 다른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여자는 거의 어린이와 같이 눈을 크게 뜨고, 우리가 하는 말은 모두 다 소화하고 싶어했다. 그 여자는 우리 메시지의 참됨을 입증하거나 반증하기 위하여 우리 말한 마디 한 마디를 비판하려고 하는 다른 구도자들과는 달랐다. 전에 가르쳤던 다른 어떤 사람들과는 달리 물문경과 복음에 대한 그녀의 지식은 급격히 증가했다. “이 기록을

받고”(모로 10:4) 그들에게 밝히 드러난 진리를 갖게 되는 사람들에 관하여 모로나이가 말할 때 마음속에 두고 말한 사람이 바로 이 여자인 것 같았다. 그런데도 아직 이 여자는 “이것을 읽”지 않았던 것이다.(모로 10:3)

“신앙으로 학문을 구하라”

나는 이 경험에 대하여 여러 번 생각해 보았다. 나는 오랫동안 누구라도 상당한 양의 연구를 하지 않고 진리를 알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웠다. 나는 최근에야 그 유고슬라비아 여자의 개종 이야기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달았다.

어떤 개념에 대하여 상세한 것을 모두 다 배우기 전에도 성신의 증거하는 권세로 인하여 그 개념이 참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람이 진리를 추구하면 그 사람의 신앙으로 인하여 그 개념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개념이 참되다는 지식을 주실 수 있다. 일단 진리에 대한 증거를 받았으면 그 사람은 자신의 공부를 그 증거에 초점을 맞추어 “신앙으로 학문을 구”(교성88:118)할 수 있게 된다. 엘마는 이렇게 가르쳤다. “신앙에 대하여 이미 말했거니와, 신앙이란 사물을 완전히 아는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신앙을 가지면 눈에 보이지 않는 참된 것들을 바라느니라.”(엘마 32:21)

물론 언제나 어느 정도 연구도 하기 전에 어떤 개념이 참되다는 지식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올리버 카우드리가 물문경을 번역하려고 시도하면서 경험한 것으로부터 알 수 있다. 주님은 올리버에게 이렇게 훈계하셨다.

“내 아들이, 불평하지 말라. 이같이 너를 대하였음은 깊은 지혜가 내 안에 있음이니라.

“보라, 너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나니, 깊이 생각지도 아니하고 구하기만 하면 내가 그것을 네게 줄 것으로 여겼도다.

“그러나 보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네 마음속으로 깊이 연구하여야 하리니, 그러한 연후에 옳은 일인지 아닌지 내게 간구하여야 하느니라.

만일 옳은 일이면 나는 네 가슴을 뜨겁게 하리니, 그로 인하여 그것이 옳은 일인 줄 느끼리라.(교성 9:6-8)

이와는 대조적으로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금판을 받고 보관한 것은 상당한 연구가 진행되기 훨씬 전에 참됨을 알게 된 좋은 예이다. 예언자는 금판에 진리가 담겨 있다는 것을 너무나 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안전히 지키기 위하여 폭도들에게 맞서고, 박해를 견디며, 전반적으로 큰 희생을 치를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은 그가 실제로 이 책의 교리적인 메시지를 배울 기회를 갖기 전에 생긴 일이었다.

왜 이 두 가지 경험 사이에 이런 차이가 있는가?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진리가 우리 생활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가에 직접 초점을 맞추어 공부하기를 원하실 것이 분명하다. 그러면 우리는 참되다는 증거를 받았으므로 어떤 개념이 참된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데 시간을 소모하는 것을 피하고, 그 진리를 우리의 매일매일의 제반 문제에 적용하는 것을 배우는 과정으로 바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신을 통하여 우리에게 진리에 대한 증거를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큰 봉사를 해주시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증거를 갖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히11:1)를 갖게 된다. 우리는 그런 “실상”과 “증거”를 갖게 되면 유고슬라비아 여자의 경우처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더 큰 빛과 진리를 애타게 간구하게 된다. 우리는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고 우리와는 다른 그분의 생각과 방식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어 공부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 힘을 다 기울여 성령과 일치하는 상태로 머물러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는 성령과 일치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음으로써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리에 대한 증거를 받을 자격을 갖출 수 있으며, 그리하여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공부를 향하여 인도받을 수 있다. *

가족 평의회에서 일함



“모 입시다.”라고 아버지가 다섯 아이를 부른다. 이 가족은 이 귀에 익은 말을 알아듣고 집과 마당의 온갖 장소로부터 식탁 주변으로 모여 든다. 이제 가족 평의회 모임 시간이 된 것이다.

교회 회원들은 가족 평의회와 가정의 밤은 다르다는 가르침을 받았다. “가족들이 매월요일 저녁에 모여 복음을 공부하고 서로 즐기며 기쁨을 나누는 것이 가정의 밤이다.

“가족들이 모여 함께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절제의 훈련을 나누며, 가족 행사 등을 계획할 때 이를 가족 평의회라 한다.”(너희는 돌이킨 후에 너희 형제를 굳게 하라. 벨기세베 신권 공과 지침, 1974-75년, 167페이지)

“가족 회의는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평의회가 된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인도 아래 열리는 이 모임에서는 가족의 문제를 토론하고, 재정에 관해 이야기하며, 계획을 세우고, 서로를 지지하고 강화할 뿐 아니라, 서로를 위해 또 가족 전체를 위해 기도한다.”(우리 가족, 소책자, 6페이지 참조) 이런 평의회에서 가족이 잘 정리되고, 한 단위 조직으로서 총관리 역원 형제들의 권고에 응할 수 있다.

한 자녀에게만 해당되는 문제나 결정, 예를 들면 선교 사업이나 개인적인 훈련 문제 등은 개별적인 면담을 통하여 좀더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을 것이다.

부모는 평의회 모임을 갖기 전에 어떤 항목을 가족이 같이 다룰 필요가 있는지 결정해야 한다. 어떤 어머니는 자신과 남편은 통일된 상태로 가족 평의회에 참석한다고 말했다. “그것은 우리가 모임을 갖기 전에 이런 문제에 관하여 조금이라도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은 미리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의를 돌려야 하는 문제에 관하여 의견의 일치를 보아 왔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족이 가야 하는 방향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시키실 그대로 인도하기 위한 영감을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왔습니다.”

물론 가족이 얼마나 자주 함께 모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정해진 지침은 없다. 가족 평의회는 가족 개개인에게 필요한 것을 해결하기에 충분하리만큼 자주 열려야 하지만, 너무 자주 열려서 무의미하게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어떤 가족은 매주 가정의 밤을 한 다음에 가족 평의회를 한다. 어떤 가족은 매주

일요일이나 매금식 주일에 모임을 갖고 또 어떤 가족은 특별히 필요한 때 가족 평의회를 연다.

이 모임의 방식은 각 가족마다 다를 수 있으며, 가족의 필요 사항이 변함에 따라 방식도 바뀌게 될 것이다. 아마 계보 사업을 계획하기 위한 가족 평의회는 여러 가지 활동을 조정하거나 가족 규칙을 정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평의회와는 다를 것이다.

이상적이라고 한다면 아버지가 감리해야 옳을 것이다. 아버지가 없는 가정에서는 어머니가 감리한다. 필요하다면 부모가 자녀 한 사람을 지명하여 토론한 문제와 결정내린 사항과 지명한 내용을 기록하게 할 수 있다. 이 모임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나야 한다.

이 모임은 가족 평의회이기 때문에 모든 가족이 참여해야 한다. 누구나 자기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제언하도록 격려해야 한다. 어떤 아버지는 이렇게 회상한다. “처음에는 말이 없는 아이에게 시켜야 했습니다. ‘철수야, 너는 이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니?’ ‘영희야, 네 생각은 어떠냐?’라는 식이었지요. 그들은 우리가 정말로 그들의 의견을 듣고

가족이 평의회에서 필요 사항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가족의 관심사를 잘 고려하면 할수록 평의회가 더 성공적이 될 것이다.

싫어하며, 그들의 의견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깨닫자마자 자유롭게 참여했습니다.” 어떤 아버지는 가족에게 어떤 구체적인 문제에 관하여 일주일 동안 생각해 오게 했다. 누구나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할 준비를 갖추고 다음 평의회에 오게 되어 있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가족들은 자기가 말할 것에 대하여 생각할 기회를 가졌으므로 훨씬 더 편안한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이 모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청하는 분위기, 거짓없는 대화 그리고 상대의 견해와 감정을 존중해주는 것이 필수적이다.”(우리 가족, 6페이지) 가령, 막내 아이가 다음 가족 활동으로서 낚시하러 갈 때 쓸 지렁이를 캐자고 할 때, 큰 아이들이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말하면 안된다. 어떤 문제에 관하여 결정하기 전에 누구나 의견을 발표하게 해주면 가족이 좀더 예의바르게 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사물을 보는 방식이 한 가지 방식 뿐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가족이 모두 의견이나 느낌을 표시한 다음에는 그 결정할 문제에 대하여 만장 일치가 되는 것이 이상적이다. 만일 그들이 동의할 수 없으면 부모가 가족에게 더 생각해 보고 그것에 관하여 기도하라고 할 수 있다. 그래도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면 부모가 총관리 역원으로서 최종 결정을 내린다. 부모는 자기 자신의 경험과 부모가 받을 자격이 있는 영감을 이용하여 모든 사람의 의견을 주의깊게 고려한 다음 이렇게 해야 한다. 어떤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 “이것은 우리 가족에게는 문제가 안됩니다. 아이들은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보통 가족 평의회 결정을 기꺼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사가 존중받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지지와 또 우리의 결정을 기꺼이 따르는 태도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가족 평의회에서 토론한 문제 가운데는 인비 사항도 있을 것이다. 가족은 이런 항목이 인비 사항이며, 가족 이외의 사람과는 이 문제를 이야기하면 안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런 규칙을 엄격하게 지킬 때,

가족내에서의 충성심과 단합심이 증진될 것이다.

가족 평의회는 가족 문제를 모두 다 해결하는 장소는 아니다. 부모가 가족의 지도자로서 가족 토론없이 결정해야 할 문제가 있을 것이나,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투표를 하기 위하여 가족 평의회를 사용하면 안된다. 예를 들어 가족이 정직의 율법에 순종할까 말까를 토론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가족 평의회는 가족의 여러 가지 문제와 절차에 관하여 토론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가족 평의회에 적합한 항목은 다음과 같은 주제가 될 것이다. 어떻게 일을 나누어서 모두가 그것에 대하여 훌륭한 느낌을 갖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텔레비전을 얼마나 보고, 어떤 프로그램을 선정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상당히 필요한 몇 가지 가구를 살 형편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더 질서 정연한 가정을 가질 수 있나? 우리는 가족으로서 분쟁을 없애기 위하여 어떻게 할 수 있나? 우리는 가족 규칙을 정해야 하나? 어떤 활동이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가족이 평의회에서 필요 사항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가족의 관심사를 잘 고려하면 할수록 평의회가 더 성공적일 것이다.

가족 평의회는 또한 개인 및 가족 활동 일정을 잡고 조정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다.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가족 전체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다. 평의회가 이러한 필요 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계획될 수도 있다. 어떤 가족은 가족이 모두 자기가 계획한 행동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고, 상충되는 것에 관하여 토론하고, 모든 사람이 의견을 발표하게 하고, 우선 순위를 정하여 덜 중요한 활동은 좀더 중요한 활동을 위한 시간을 내기 위하여 보류해 둬으로써 가정에서의 모든 일이 원활히 진행되게 하고 있다.

활동이 서로 상충되어 일정에 대한 결과와 조정이 필요한 때가 많이 있다. 이런 종류의 상충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어떤 가족은 약속, 학교 행사, 생일 및 기타 특별한 가족



행사를 기록하기에 충분한 사각형 공간이 있는 달력을 선택했다. 가족들이 가족 평의회에서 다음 주 활동을 열거하면 그런 행사를 달력에 기록한다. 아침에 잠깐만 살펴보기만 하면 모든 사람에게 그 날의 특별한 행사를 다시 상기시켜 주게 된다.

가족 평의회 of the 마지막 목적은 가족 단위내에서 복음 사업을 진척시키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가족의 발전을 계획하고 평가하기 위한 지침으로써 신권 사업의 4가지 기본적인 강조 사항을 활용할 수 있다. 이것이 가족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개인 및 가족을 위한 네 가지 기본적인 초점

계보

여러분은 자신의 기억의 책을 볼 때 자신이 해야 하는 사업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는 신전의 사진이 들어 있는 슬플 정도로 얇은 책을 보게 되는가? 자신의 개인 역사 및 자녀의 역사는 아직도 종이에 기록하지 않은 뒤범벅된 추억에 불과한가? 또 지난 번에 마지막으로 신전에 갔다 온 것이 아주 오래된 일인가? 왜 가족 평의회 때 이런 것을 토론하고 계획하지 않는가? 가족들이 계보 탐구를 위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아마도 무엇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 지 사실은 아무도 모르고 있을 수 있다.

아마도 가족들이 자기 가계도에 이름이 적혀 있는 사람에 관하여 더 많은 사실을 발견할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가족 가운데 한 사람에게 조부모나 다른 친척을 찾아보는 일을 지명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사람은 정보나 증빙 서류를 요청하는 편지를 쓸 수 있다.

평의회에서는 또한 역사 기록을 잘 정리하는 방법과 그것을 항상 현시점에 맞게 정리하고 간수하는 방법에 관한 아이디어를 토론하고 발전시키면서 개인 역사를 정리하는 작업도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가족원들이 그 일을 하는 기간과 마감일을 함께 정할 수 있다.

그런 다음, 신전이 있다. 어쩌면 어린 자녀가 집안 주변 일을 기꺼이 도와 주어 신전 추천서를 갖고 있는 가족이 신전에 참석할 시간을 갖게

해줄 마음 자세가 되어 있을 것이다. 또는 가족이 신전에서 멀리 떨어져 살고 있다면 여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돈을 저축할 방법을 계획할 수 있을 것이다.

물질적인 복지

자신의 의복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느끼고 있는가? 가족의 비축 식량을 두는 선반이 비어 있는가? 매달 얼마나 많은 청구서를 지불하고 있나? 십대 자녀가 재정적인 안정을 얻을 수 있는 직업에 대한 계획은 없는가?

이런 때도 가족 평의회가 도움이 될 수 있다. 자녀에게 재정 상태를 설명해 줌으로써 자녀들이 그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게 되면 좀더 기꺼이 자전거나 기타 그들이 요구하던 여러 가지 물건이 없이도 참고 지낼 준비를 갖추게 될 것이다.

어떤 가족은 가족 평의회를 가진 다음, 성탄절에 서로 비축 식량 항목을 주기로 결정하기까지 했다.

아마 여러분의 가족 중에는 신체 단련에 열성이 강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가 가족을 위한 신체 단련 프로그램을 진행시키는 임무를 맡을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이 모두 참여할까? 가족 평의회에서 모두 함께 한 가족으로서 그것에 대하여 토론했다면 아마 그렇게 할 것이다.

선교 사업

여러분은 매일 직장으로 가는 길에 그의 집을 지난다. “나는 정말로 저 사람과 복음을 함께 나누어야 할텐데.”라고 생각하지만 매일 그냥 직장으로 발길을 재촉하고 만다. 그리고 아들이 있다. 그는 15살이다. 그는 선교 사업을 준비하고 있나? 선교 사업 기금을 모으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떤가? 배우자와 함께 선교 사업을 계획하고 있나?

아마 가족이 선교 사업에 대하여 토의할 수 있을 것이다. 가족 평의회를 한 다음, 전체가 선교 사업을 위한 특별 저축 계정을 개설하여 모든 사람이 현금하도록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평의회 모임은 또한 저기 길 밑에 있는 가족과 우정 증진할 방법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혹시 딸이 그



집 딸의 친구인가? 아마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영적인 복지

마지막으로, 가족의 영적인 성장이 있다. 가족이 평의회에서 언제 함께 경전을 읽을 것이며, 언제 가족이 기도를 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평의회에서 가족 봉사 활동을 계획할 수 있다. 아버지가 집사 정원회 고문일 수도 있다. 아버지가 그 부름을 수행하도록 가족이 어떻게 도와 줄 수 있나? 또 월계반 회장인 순회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아마 그녀가 자기 부름을 수행할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녀의 남동생이 기꺼이 그녀의 집안 일을 도울 용의가 되어 있을지 모른다.

가족 평의회는 가족으로서 함께 일하고 놀고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좀더 잘 인식하고, 가족 목표를 설정하고, 발전 상황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존경과 이해와 조화의 분위기를 창조해 준다. 자녀들이 가족의 계획과 목표를 만드는 데 참여하고 도왔기 때문에 그것에 더욱 헌신하게 된다. 그리고 모든 가족의 영성, 단합, 단결, 서로에 대한 사랑이 자라게 된다

한때 개종했던 사람을 고쳐 줌

매릴린 브릭 테프트

자 주빚 말미잘, 아기 게, 불가사리 등이 수집자들의 방해로 받지 않고 사는 지역인 해양 보호 구역이 캘리포니아 해변을 따라 흩어져 있다. 여기에서는 바위 사이를 산책하는 사람들이 오르내리는 파도 속에서 움직이는 바다의 생명체를 볼 수는 있으나 만지지는 못한다. 그러나 다른 해변에서는 좀더 자유롭게 바다의 생명체와 어울려 지낸다. 여기에서는 폭풍으로 해변에 밀려 온 바다 생물은 훌륭한 사냥감이다. 해변을 뒤지는 사람들이 이것을 밝은 색 바닷물 통에 담아 그들의 자연적인 환경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내륙으로 가져 간다.

자연주의자인 로렌 아이슬리가 이런 해변에서 한 가지 경험을 했는데, 이것은 생명 보존에 관한 유명한 비유가 되었다. 어느 매우 이른 아침에 아이슬리는 폭풍이 지난 후 해변에서 혼자서 뭍 찾아 다니는 사람을 만났다.

아이슬리는 “수집하고 계십니까?”라고 물었다.

그 사람은 꿈틀거리는 불가사리를 멀리 바다 속으로 던지면서 “이런 것만요. 그것도 살리기 위해서만.”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불가사리는 잘 던져주세요. 사람이 그들을 도울 수가 있어요.”라고 말했다. (별을 던지는 사람, 뉴욕: 하코트, 브레이크스, 조바노비치, 172페이지) 아이슬리가 “별을 던지는 사람”이라고 한 이 사나이는 평범한 수집가가 아니었다. 그의 유일한 관심은 불가사리를 호기심 많은 관광객으로부터 구원하여 그들의 바다에서 다시 헤엄치고 다닐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책임 가운데는 “살리기 위하여 수집하는 것” 즉 영적 생존을 위하여 투쟁하는 사람들을 찾고, 그들을 되살리기 위하여 돕는 것이 포함된다. 우리의 해변에는 실제로

인간 조난자들이 있다. 일부는 스스로 복음으로부터 떨어져 나왔거나 어떻게 되었든 길을 잃은 사람들이다. 이들이 구세주의 비유에 있는 잃은 양이요, 잃은 동전이다. 그들은 우리 와드와 스테이크, 이웃 또 어찌면 가장 가까운 친구들 사이에 있을지도 모른다. 이들은 지금은 떨어져 나간, 한때는 개종했던 사람들이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토마스 비마쉬가 침례받은 직후 그에게 위안인 동시에 매우 강력한 훈계가 되는 축복을 해주었다. “보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교회의 병고치는 의사가 되라.”(교성 31:10)

교회의 병고치는 의사는 어떤 책임을 갖고 있는가? 아마 마쉬 형제는 교회내에서 영적인 병고침을 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기본적인 책임 가운데는, 그 별을 던지는 사람의 말에 의하면 “살리기 위하여 수집하는 것”이, 또는 주님의 말씀으로 교회의 병고치는 의사가 되는 것이 포함된다. 우리는 새로운 개종자를 찾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가운데서도 지금은 떨어져 나간 한때 개종했던 사람들을 잊으면 안된다. 선교 사업을 하기에는 좀 부끄럼을 많이 타는 사람에게는 복음의 치료 인술을 시행하고, 다른 사람들의 생활에 기쁨과 안경을 가져다 줄 훌륭한 기회가 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구두를 대신 벗겨 주지는 않으며, 단지 그들이 스스로 벗도록 그 구두에 손이 닿을 수 있게 도와 줄 따름이다.

나는 과문당하였을 때 많은 친구들과 와드 회원으로부터 버림받았던 내 친구 스티븐에 관하여 생각하게 된다. 그는 이웃이 자신을 받아들여 주고, 자신의 숨은 능력을 알아 주고, 활동에 끼어 주는 어떤 새로운 와드로 이사했다. 그들은 정말로 그에 대하여 염려했으며, 그가 교회로 돌아오는 것에 마음을 쓰고 있었다.

그가 침례받은 날은 춥고 폭풍이 불며 몹시 비가 왔으나 50명 이상의 새로운 이웃과 친구들이 정말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모여 들었다. 예배가 끝날 때 지휘자가 폐회 찬송을 지휘하기 위하여 일어섰다. 그 자매는 스티븐을 보고 그의 눈에서 빛나는 소망을 알고 그에게 지휘를 맡겼다. 스티븐은 다시 청중 속에서 노래부르는 것 이상의 활동을 할 수 있었다. 이제 교회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가 친구들이 찬송가를 부르는 것을 지휘할 때 그 기뻐하던 모습을 언제나 기억할 것이다.

나는 생활 방식과 습관으로 인하여



교회로부터 떨어져 간 친구 엘리사벳을 기억한다. 그 자매는 10년 이상이 지난 후 다시 돌아가서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어느 일요일, 교회 옆으로 차를 몰고 가다가 들어가 보고 싶은 느낌이 들었다. 그 자매는 바로 그 날 우리 와드에 들어왔다. 그녀의 복장과 경험이 우리들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에 자신이 결코 적당하게 어울리지 않을까봐 염려했다. 그러나 새 친구들은 그를 매우 따뜻하게 대하고, 활동에 참여시키고, 왕국 건설에 있어서 그녀의 예술적 재능을 사용할 길을 마련해 주었다. 그녀의 방문 교사는 100퍼센트 완전히 충실했다. 그들은 엘리사벳을 사랑했으며 그것은 지명 때문이 아니었다. 그들이 지금은 서로 다른 곳에 살지만 아직도 접촉을 계속해서 그녀의 생활에 축복을 주고

있다. 엘리사벳이 교회에서 완전하게 우정 증진이 되어 다시 받아들여지고, 상호부조회에서 가르치도록 부름받은 때가 왔다. 그녀가 새 부름에서 지지받던 날 밤에 조용히 예배당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되었다. 나는 혹시 그 부름을 받고 마음이 불편해서 그러는지 걱정이 되어 불렀다.

그 자매는 이렇게 말했다. “아닙니다. 그 날 어머니에게 말씀드리기 위하여 집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에게 그 기쁜 소식을 말씀드렸을 때 우리는 부엌에서 함께 춤을 추며 다녔어요. 어머니는 수없이 ‘언젠가는 네가 상호부조회에서 가르치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철학적인 의문과 복음

교리를 일치시킬 수 없어 수년 동안 영적으로 방황하던 친구 캐서린이 생각한다. 그래서 떨어져 나가고 암흑에 빠졌으나 그에게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었다. 그들은 밤늦게까지 앉아서 진리를 설명하고 질문에 대답해 주었다. 그 친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최근에 캐서린이 엔더우먼트를 받을 때 신전에서 그녀와 함께 있었다. 그럴 것 같지 않디가요? 그녀가 떨어져 나간 것을 보면 그렇기도 하다. 불가능하다구요? 그녀에게 필요할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친구들이 있었으므로 그렇지 않았읍니다.

길을 잃은 사람들을 찾아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 아무것도 받지 않고 주기만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주는 사람은 마음속에서 성령의 속삭임을 느낄 기회를 받는다. 자신의 생활을 다시 쌓는 데 있어서 도움 기회를 주는 사람은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간증에 의지함으로써 우리에게 힘을 가져다 준다. 대화를 하면서 그들은 우리에게 신뢰할 것을 가르친다. 그들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세상에 대한 우리의 시야를 키워 준다. 또한 회개하면서 대속이 실재함에 관하여 우리에게 많이 가르쳐 준다.

산 자 가운데서 모이고, 교회의 병고치는 자가 될 수 있는 기회야말로 더할 수 없는 기쁨을 가져다 준다. * 매릴린 브릭 태프트는 솔드레이크시티 와드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다.



“그의 계획이 완전하심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노니”

조앤 브레이

나는 그 누구를 위해서도
흘리지 않던 눈물을
그 자매를 위해 흘렸다.
그 자매는 나에게 너무나
많이 가르쳐 주었다.

간호 학교에 다닐 때 우리는 병원에서 불치 환자와 함께 시간을 보냄으로써 죽고 사는 것에 관한 공부를 끝냈다. 거기에서의 과제는 하루 3교대로 8시간을 꼬박 환자들의 신체적인 욕구 뿐 아니라 물리적인 욕구까지도 채워 주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런 환자를 직면하는 것이 얼마나 마음내키지 않는 일이었는지 설명할 수가 없다. 나는 정말로 그런 것을 할 수 없으리라고 느꼈다. 학교에 전화해서 병이 났다고 말할 것까지 생각해 보았으나 우리 과의 학점은 이 과제를 끝내는 것에 의하여 좌우되었다.

나는 그날 병원 승강기로 들어서면서 매우 부적절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밤새 가슴과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기도했으나 승강기가 올라가는 동안에 부분적으로 응답을 받았다.

“겁내지 마라.”라는 속삭임이 들었다.

나는 의심에 찬 질문을 했다. “그렇지만 무슨 말을 합니까? 말일성도가 아닌 사람에게 어떻게 죽음에 대하여 말합니까?” 내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우리 반에서……우리 학교 전체에서 말일성도는 나뿐이야. 내가 일하는 병원 가운데는 임직원이나 환자 가운데 말일성도가 한 사람도 없는 곳이 있어.”

4층에 도착했을 때 담당 환자들의 진료표를 보았다. 우리는 진료표를 보기 전에 환자를 개인적으로 평가하게 되어 있었으므로 이것은 우리가 늘 하는 방식은 아니었다. 이런 방식은 우리의 학습 훈련의 일부였다.

그러나 방에 들어가기 전에 무엇인가가 그녀의 기록표를 점검해 보라고 지시했다.

모든 것이 다 점검되어 있었다. “이브크리슈. 불치의 암-최종 단계.” 그러나 구석의 종교란에 “LDS”라는 표시가 있었다.

곧 나는 그녀의 어두운 방으로 들어갔다. 내가 그녀의 손을 잡고 개인 자매라고 자신을 소개하자 수개월 동안 고통으로 침침해진 그녀의 눈이 조금 밝아졌다.

내가 그녀에게 육체적으로 필요한 것을 해결해 주는 동안 우리는 쉽게 친해졌다. 이 환자에게는 아직 집에 여러 자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아직 47세밖에 안되었다. 그 자매는 교회에 대하여, 또 연차 대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여행했던 시기에 관하여 이야기했다. 그것은 그녀가 가장 아끼는 추억이었다. 나는 다음 일요일 아침에

방송될 다가오는 4월 연차 대회에 대하여 이야기했다. 그 자매는 미소지었다. 그 날 그 자매는 여러 번 병실 아래쪽에서 큰 화상을 입은 어린 소년의 울음 소리에 “딱하지, 굉장히 아플거야.”라는 말을 되뇌이곤 했다. 그녀 자신이 그렇게 큰 고통을 받는 사람으로서 그런 동정심과 사랑은 너무나 벅찬 것같이 보였다. 나는 그녀에게 감탄했다. 내가 떠날 시간이 너무 빨리 왔다. 나는 떠나기 전에 그녀의 베개를 바로 잡아 주고, 침대 시트에 있는 그녀의 신호등으로 손을 가져 갔다. 그것을 그녀의 손에 쥐어 주자 내 손을 잡고는 내가 질문할 수 없었던 문제에 대답해 주었다.

“주님은 완전하세요. 나에 대한 그분의 계획은 완전하시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그녀를 껴안아 주고는 조용히 복도로 빠져 나왔다. 나는 큰 숨을 들이쉬고, 관리 데스크에 가서 그녀의 차트에 이렇게 유의 사항을 적었다. “일요일 아침 6시에는 크리슈 여사의 텔레비전을 반드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연차 대회에 맞추어 주실 것.” 그리고는 보고 회의에 가서 비회원으로 구성된 클래스에서 간증을 했으며 그들이 내 말씀을 깨달아 주기를 기원했을 뿐이었다. 그 다음 월요일에 교실에서 공부하는데, 나를 담당하는 교사가 자기 사무실로 불렀다. 그 일요일 아침에 크리슈 자매가 보던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끝나자마자 곧 세상을 떠났다는 말을 들었다. 나는 그 누구를 위해서도 흘리지 않던 눈물을 그 자매를 위해 흘렸다. 그 자매는 나에게 너무나 많이 가르쳐 주었다.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그의 계획은 완전하시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압니다.” *

브레이 자매는 오클라호마주 툄사에 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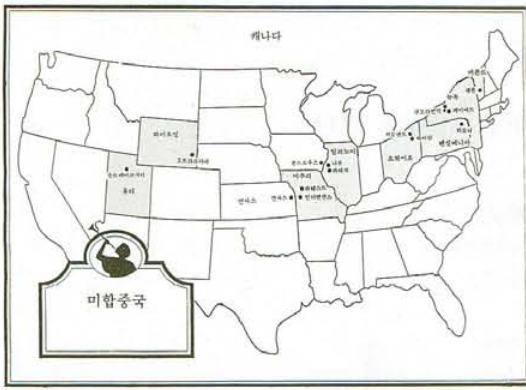
오늘날의 모습

일리노이주와 트레일 웨스트에 있는 교회의 역사적 장소에 대한 카메라 탐방

교회와 관련된 역사적 장소에 관한 이 사진 편집의 세번째이자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일리노이주의 훌륭한 나무의 거주지와 건물의 모형을 살펴보게 된다. 이 중에 많은 것이 회복되었으며, 박해받은 성도들은 그레이트 솔트레이크 계곡의 피난처를 찾아 끝이 없는 것 같은 대평원을 가로질러 출발하면서 이것을 버려 두고 갔다. 사진은 엘던 리쇼텐 및 제드 클라이크 작품임.

사진 설명: (아래) 상호부조회를 기념하는 조각상 정원이 있는 나무 일리노이 방문자 센터, 1978년 여름에 헌납했음.





①: 나부에 있는 죠나단 브라우닝의 집과 작업장. 브라우닝은 가장 최초의 연발총을 발명한 사람 가운데 하나이며, 그의 아들 존 모세즈 브라우닝은 유타주 옥든에 정착했으며, 기관총을 발명했다.



②: 윌포드 우드러프의 나부 주택 정면



③



④

③: 나부에 있는 재건한 세븐티즈 홀.
이것은 1843년부터 44년 사이에
세워졌으며 강연, 수업, 예배하는 데
사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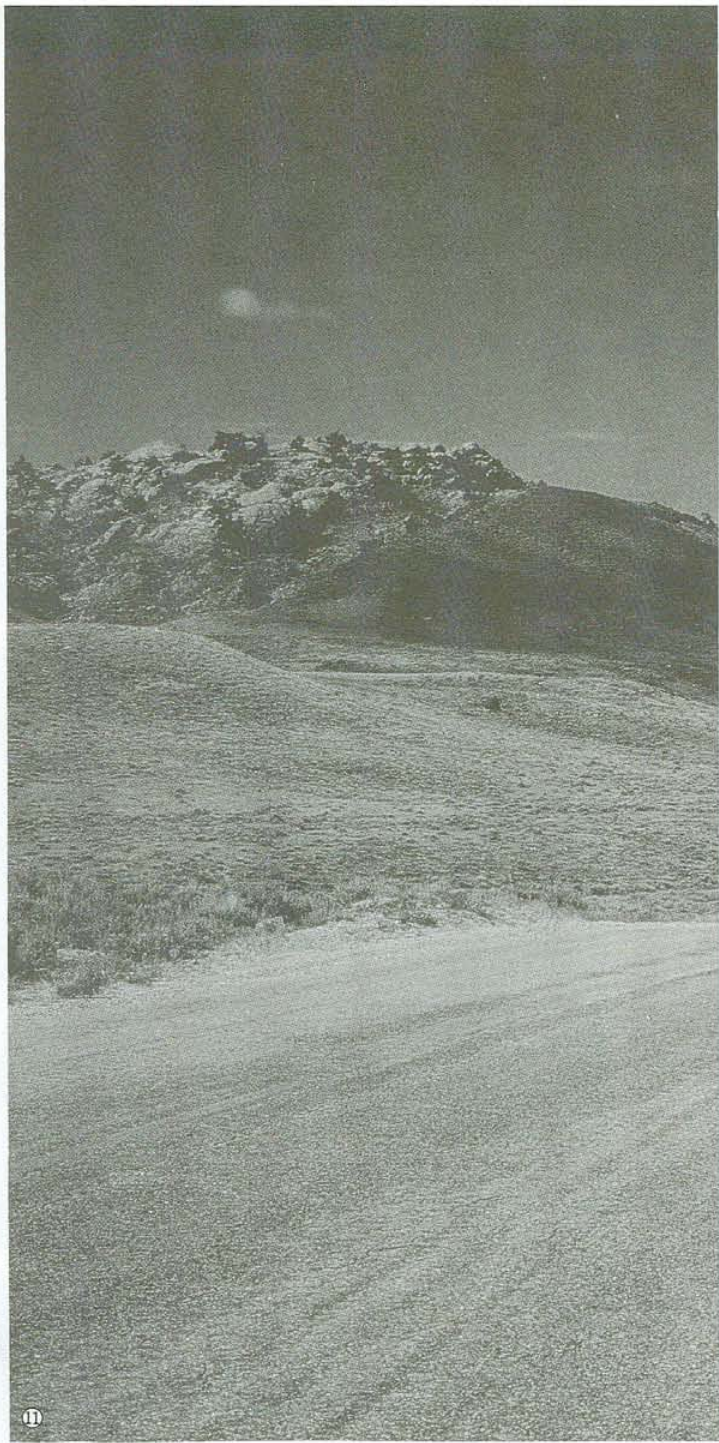
④: 요셉 스미스 및 하이람 스미스가
1844년 6월 27일에 피살된 카테지 감옥.
⑤: 수감자들이 첫밤을 지낸 카테지 감옥.
⑥: 원래 요셉 스미스 및 엠마 스미스의
무덤이 있었던 자리를 표시하는 돌이 있는
스미스 가족 묘지.



⑤



⑥



- ⑦ : 와이오밍주 권지 근처의 플랫 강에서 서쪽으로 멕시코 힘이 내려다 보인다. 이 암벽 사이의 길은 너무나 경사가 심해서 개척자들이 내려가는 길에 마차에서 톱을 떨어뜨리면 앞에서 끌고가는 소 앞에 떨어졌다 했다.
- ⑧ : 와이오밍주 라라미 요새 서쪽으로 8킬로미터 떨어진 곳. 해발 3천 미터의 라라미 요새가 서부 산맥이 시작되는 곳이었다.
- ⑨ : 와이오밍주 글렌도 서쪽의 호스슈크리크(개천) 근처의 히버 스프링즈. 이곳의 무성하게 푸른 목초지는 성도들이 즐겨 캠핑을 하던 곳이었다. 이곳은 뛰어난 기마수로서 자주 정찰을 한 히버 시 킴볼의 이름을 따라 지어졌다. 그가 성도들 중 처음으로 이곳을 본 사람이었다.
- ⑩ : 브리감 영, 히버 시 킴볼 및 다른 몇 사람이 1947년 9월에 솔트레이크 계곡으로부터 윈터 쿼터즈로 돌아오는 길에 와이오밍주 글렌록 근처의 디어크리크로 걸어 오르다가 어미 회색곰을 놀라게 해서 이 바위의 많은 절벽을 기어오름으로써 간신히 그 곰의 추격에서 벗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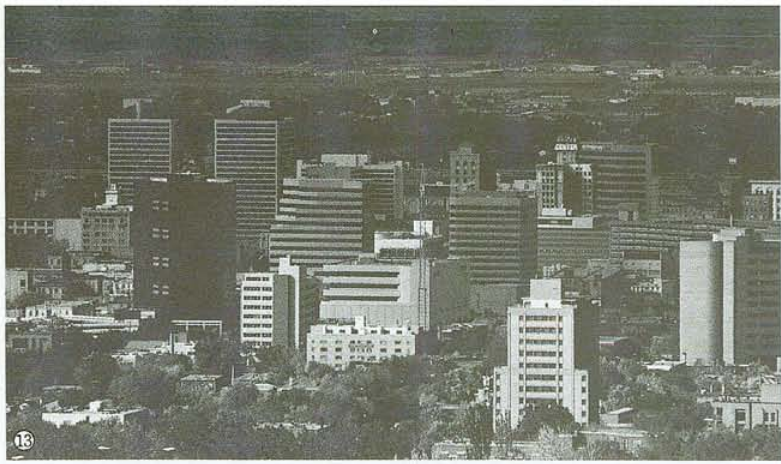


⑪: 이미그런트 캠프가 서쪽을 향하고 있다. 이것은 서부로 가는 험난한 길을 따라 나 있는 여러 "이미그런트 캠프" 가운데 하나이다. 이것은 와이오밍주 데블즈 게이트 근처에 있다. 서부로 여행하는 말일성도는 모두 이곳을 통과했다.

⑫: 인디펜덴스 록이 서쪽을 향하고 있다. 와이오밍에 있는 이 유명한 캠핑 장소에서 말일성도 어린이들이 바위를 기어올랐으며, 수많은 어른들이 거기에 자신의 이름 첫 글자를 새겨 넣거나 그림을 그렸다.



⑬⑭⑮: 오늘날의 솔트레이크 계곡의 모습. 산악
사이에 위치한 솔트레이크시티가 점점 커지고 있다.





대답 : 제이 로저 플루먼,
와싱턴 스포케인 선교부장

질문 : “금식에는 어떤 것이
포함됩니까? 금식에는 단지 굶는
것 이상의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응 게 들으셨습니다. 금식에는 굶는
것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1. 우리는 주님께 관하여 더 배우고
주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금식합니다.

2. 우리는 영성을 높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금식합니다.

3. 우리는 복음에 대한 간증을 얻고
강화시키기 위하여 금식합니다.

4.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영감을 받기 위하여 금식합니다.

5. 우리는 구원의 계획과 우리가
주님에게 의지하고 있는 것을 좀더
충분히 이해하기 위하여 금식합니다.

6. 우리는 병든 사람과 특별한
축복이 필요한 사람을 위하여
금식합니다.

7. 우리는 금식 현물을 바침으로써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하여
금식합니다. 금식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우리에게 중요한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야 58장 3절부터 12절 사이에
참된 금식의 법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많은 금식의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예를 들면, “홍악의
결박을 풀어 주며 멍에의 줄을 풀러
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주린 자에게 네 식물을 나눠
주며.”(6-7절) 또 금식으로부터 올 수
있는 축복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9절) 이런 구절이 나에게 큰
감명을 주었고, 금식하는 방법과
금식이 가져다 주는 축복을 이해하게
해 주었습니다.

금식과 기도는 둘 다 필요합니다.

경전에서 이것을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엘마는 백성들에게 자기가
말하는 것이 참되다는 것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여러 날을 금식하고 기도하며
이러한 것을 스스로 알려
하였으매.”(엘 5 : 46)·금식에는 항상
기도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하여 “슬픈 얼굴”을
하고 위선적인 방법으로 금식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마
6 : 16-18, 니삼 13 : 16 참조) 나는
금식을 완전히 다 이해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금식할 때 어떤
일이 생기며,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
말씀드리기 위한 말을 잘 사용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금식으로부터 오는 느낌은 신성하고
매우 강력합니다. 이런 느낌은 영감을
주고, 교화하고, 세위 주고, 강화시켜
줍니다. 나에게 있어서 금식과 느낌은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들 스펜서는 거의 2년 전에
침례받은 이래로 금식하는 것을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펜서가 이런 어린 나이에 금식해야
한다고 느끼게 만든 적이 없습니다.
그는 어떤 주일에는 우리만큼
오랫동안 금식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얼마 전 금식 간증
모임에서 그가 나에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제가 올라가서 간증할
생각이에요.” 나는 미소를 짓고,
고개를 끄덕이며 찬성했습니다. 그
진실한 간증이 나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는 무엇인가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나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금식을 통하여 영적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정말
확실히 압니다. *



1847년 7월, 개척자들이 최초로 솔트레이크 계곡으로 들어왔던 와사치 산맥을 통해서 본 솔트레이크시티 건물. 유타 여행 위원회 제공.